

1. 다음 유적들이 만들어진 시기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울산 검단리



부여 송국리

- ① 벼농사가 보급되면서 이전보다 식량 사정이 좋아졌다.
- ② 벌목을 위해 돌도끼가, 수확을 위해 반달 돌칼이 널리 이용되었다.
- ③ 축적된 잉여 생산물을 돌려싸고 집단 사이에 갈등 양상이 나타났다.
- ④ 집단 내부에 계층 분화가 일어나고, 무덤으로서 고인들이 축조되었다.
- ⑤ 갈아서 만든 석기가 널리 사용되었고, 빗살무늬 토기가 주로 제작되었다.

정답: ⑤

* 청동기 유적지

• **울산 검단리 유적**(청동기): 울산광역시 울진군 검단리에 있는 청동기 전기의 환호(環濠) 유적. 이 환호유적은 BC 3세기 무렵의 일본 야요이 시대의 환호보다 1세기 가량 앞선 것으로 이제까지 환호가 야요이 문화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학설을 뒤엎고, 한국의 청동기 문화가 야요이 문화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학설을 뒷받침해 주었다.

• **충남 부여 송국리 유적**(청동기):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에 있는 청동기 시대의 돌널무덤과 독무덤 유적. 양단에 기둥구멍을 가진 집터의 특색이 있으며, 비파형동검이 출토되었다.

비파형동검은 요녕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어 요녕식동검이라고도 불리는데, 한반도의 중

부에서 요녕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청동기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돌널무덤 역시 집자리 유적과 비슷한 시기인 BC 5~4세기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독무덤은 돌널보다 약간 큰 크기의 구덩이를 상하 2단으로 파서 돌널을 세워 묻은 뒤 뚜껑돌을 덮었다.

돌널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송국리형 토기'를 이용하였는데, 집터 근처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독 바닥에 구멍을 뚫은 것이 특징인데, 주로 대롱옥이 함께 묻혀 있었다. 독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보아 어린이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독무덤이 만들어진 시기는, 집자리 유적이나 돌널무덤과 비슷한 BC 5~4세기로 추정된다. 이곳의 돌널무덤과 독무덤은 '송국리형 토기'로 특징지어지는 송국리형 문화의 한 부분을 이룬다

•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으로, 한반도 청동기 시대가 본격화된다. 농경이 발달하고(벼농사의 시작과 반달돌칼, 돌도끼 등의 석기농기구 사용), 청동기(무기, 장신구)가 사용되면서 사유 재산 제도와 계급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부와 권력을 가진 족장(군장)이 출현하였다. 족장은 세력을 키워 주변 지역을 아우르고 마침내 국가를 이룩하였다. 고인돌도 이 무렵 나타나 한반도의 토착 사회를 이루게 된다. 청동기 시대에는 생산 경제가 그전보다 발달하고 청동기 제작과 관련된 전문 장인이 출현하였으며, 사유 재산 제도와 계급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⑤ 간석기와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한 시기는 신석기 시대이다.

2. 다음 유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고구려 후기의 대표적인 고분 양식을 보여 준다.
- ② 땅을 파지 않고 시체를 지상에 안치한 것이 특징이다.
- ③ 구조상 도굴이 어려워 발굴할 경우 많은 유물이 출토된다.
- ④ 무덤 주인공의 시체가 안치된 공간에 벽화가 많이 그려졌다.
- ⑤ 부부 합장이 불가능하여 두 개의 무덤을 덧붙여서 만든 경우도 있다.

정답: ②

* 계단식 돌무지무덤 장군총

• 돌무지 무덤은 고구려와 백제 초기 고분 양식으로서 일정한 구역의 지면에 구덩이를 파거나 구덩이 없이 시체를 놓고 그 위에 돌을 쌓아 묘역을 만든 무덤이다.

일부 지배 계층의 돌무지무덤에 있는 장대한 돌방은 쌍실로 만든 것이 많은데, 이것은 부부합장인 것으로, 그 대표적인 예로는 장군총 ·태왕릉 ·천추총 등이 있다.

• 장군총은 화강암 표면을 정성들여 가공한 절석을 7단의 스텝 피라미드형으로 쌓았는데, 기단의 한 변 길이 33m, 높이 약 13m이다. 기단의 둘레에는 너비 4m로 돌을 깔았으며, 그 바깥둘레에 너비 30m의 역석을 깔아 능역을 표시하였다. 널방은 화강암의 절석을 쌓아 지었는데, 천장석이 있는 굴식이며, 2개의 널받침이 있다.

① 고구려: 돌무지무덤(초기) -> 굴식돌방무덤(후기)

③ 돌무지 덧널 무덤은 신라 초기에 주로 만든 무덤으로 지상이나 지하에 시신과 껌 묻거리를 넣은 나무덧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냇돌을 쌓은 다음에 흙으로 덮었다. 도굴이 어려워 많은 껌묻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

④ 굴식 돌방무덤은 돌로 널방을 짜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 봉분을 만든 것이다. 널방의 벽과 천장에는 벽화를 그리기도 하였다.

⑤ 널방이 있고 천장석이 있는 큰 공간이 있으므로 부부 합장이 가능하다

3. 다음은 어느 왕의 행적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점]

523년	선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다.
524년	임나라 고조로부터 '지절 도독백제군사 수동장군 백제왕'으로 책봉되다.
538년	
561년	고구려의 남쪽 경계를 공격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수복하다.
564년	신라 정벌에 나섰다가 관산성 부근에서 매복에 걸려 죽음을 당하다.

- ①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고치다.
- ② 섬진강 하구의 대사진을 탈취하고 가야 세력을 압박하다.
- ③ 요서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여 점령하고 진평군을 설치하다.
- ④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불교를 공인하고 도성에 사찰을 건립하다.
- ⑤ 왜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태자인 전지를 외교 사절로 파견하다.

정답: ①

* 백제 성왕

성왕은 대외 진출이 쉬운 사비(부여)로 도읍을 옮기고(538),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면서 중흥을 꾀하였다. 성왕은 중앙 관청과 지방 제도를 정비하고, 불교를 진흥하였으며, 중국의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함과 아울러 일본에 불교를 전하기도 하였다. 한편, 성왕은 고구려의 내정이 불안한 틈을 타서 신라와 연합하여 일시적으로 한강 유역을 부분적으로 수복하였지만 곧 신라에게 빼앗기고, 자신도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② 백제는 고구려에 빼앗긴 한강 유역의 보상 차원으로, 6C 초 무령왕 때에 이문(남원)을 점령하고 소백산맥을 넘어 대가야가 장악하는 중요 해상 루트인 섬진강 하구의 대사진(하동) 일대를 장악하며 가야 연맹을 압박하였다.

③ 근초고왕 때에 정복 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백제는 수군을 정비하여 중국의 요서 지방으로 진출하였고(요서,진평 2군 설치), 이어서 산둥 지방과 일본의 규슈 지방에까지 진출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벌였다.

④ 침류왕 때에는 불교를 공인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였다(384).

⑤ 아신왕은 광개토왕이 영도하는 고구려의 남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심하였고, 397년 태자 전지를 일본에 볼모로 보내어 일본과 화친을 맺었다. 그리하여 400년 왜가 신라를 공격하자 광개토대왕이 한반도 남부 정벌을 나서게 되었다.

4. 다음 자료에 보이는 백제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은? [3 점]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 왔다. 왕이 이를 듣고 패하 강변에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그들이 이르기를 기다려 급히 치니, 고구려 군사가 패하였다. 겨울에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쳐들어가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 왕 사유가 힘을 다해 싸워 막다가 빛나간 화살(流矢)에 맞아 죽었다. 왕이 군사를 이끌고 물러났다.

- <삼국사기> -

- ① 영산강 유역에 남아 있던 마한 세력을 정벌하고 남해안까지 영역을 넓혔다.
- ② 고구려의 남진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신라의 눌지왕과 군사 동맹을 맺었다.
- ③ 중국 계통의 선진 문물을 가야 소국들에 전해 주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다.
- ④ 선진 문물의 수입에 목말라하던 왜를 끌어들이어 군사적 후원 세력으로 삼았다.
- ⑤ 바다 건너 동진과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중국과의 직접 교류를 확대하였다.

정답: ②

* 백제 근초고왕(? ~ 375)의 업적

• 고구려왕 사유(고국원왕)의 죽음이 힌트

백제는 4세기 중반 근초고왕 때에 크게 발전하였다. 이 때의 백제는 마한 세력을 정복하여 전라도 남해안에 이르렀으며, 북으로는 황해도 지역을 놓고 고구려와 대결하였다. 또, 낙동강 유역의 가야에 대해서도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정복 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백제는 수군을 정비하여 중국의 요서 지방으로 진출하였고, 이어서 산둥 지방과 일본의 규슈 지방에까지 진출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벌였다.(고대 해상권 형성: 서해 직항로 개척)

이로써 백제의 왕권은 점차 전제화되고 부자 상속에 의한 왕위 계승이 시작되었다.

② 나제 동맹: 비유왕(백제) - 눌지왕(신라) (433)

④ 근초고왕 때에 아직기는 일본의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고, 뒤이어 일본에 건너간 왕인은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고 가르쳤다. 선진 문화에 목말라 하는 일본과 일본의 군사적 후원을 바라는 백제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⑤ 근초고왕은 372년에 중국 동진(東晉)에 조공하여 '진동장군 영낙랑태수(鎭東將軍領樂浪太守)'라는 작호를 받았다.

5. 밑줄 그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적절한 사실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7세기 후반 문무왕을 거쳐 7세기 말의 신문왕 때에 이르러 신라의 왕권은 더욱 강화되어 전제 왕권이 확립되었다. 신라 중대의 전제 왕권은 8세기 중엽에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8세기 후반에 이르러 무너졌다.

— < 보 기 > —

ㄱ. 정전 지급 ㄴ. 녹읍의 부활
ㄷ. 대공의 난 ㄹ. 김흠돌의 난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신라 하대 정치 혼란의 시작: 8C 후반
녹읍의 부활과 왕위 쟁탈전

신문왕 때에 절정을 이룬 전제 왕권은 진골 귀족 세력의 반발로 경덕왕 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녹읍이 부활되었고(757), 사원의 면세전이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도 압박을 받았다.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되자, 중앙의 귀족은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만을 유지하려 하였다. 더욱이 그들의 지나친 향락과 사치 생활로 인하여 농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혜공왕 때인 768년에 대공의 난, 96각간의 난이 벌어지고 김양상(선덕왕)의 왕위 쟁취 이후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며 진골 귀족들 사이에는 힘만 있으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이에 경제력과 군사력을 확보한 귀족들은 왕위 쟁탈전을 벌였다. 이로써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연합적인 정치가 운영되었으며, 집사부 시종보다 상대등의 권력이 더 커지는 신라 하대가 출발하였다.

㉠ **정전 지급**: 성덕왕 때에 실시(727), 귀족에 대한 국왕의 권한을 강화하고 농민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이었다.

㉡ **김흠돌의 난**: 신문왕 때에 왕의 장인 김흠돌의 모역사건(681). 이를 빌미로 많은 진골 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전제 왕권을 수립을 시작하였다.

6. 다음은 백제 유적 탐방을 준비하면서 나는 대화이다. 갑~무가 가려는 곳을 지도에서 찾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2점]



- 갑 - 나는 벽돌로 쌓은 무덤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꼭 한번 가 보고 싶어.
- 을 - 난 백제 멸망의 한이 서려 있는 낙화암을 찾아가 삼천궁녀의 슬픈 전설을 되새겨 볼 거야.
- 병 - 나는 백제 초기의 도성 유적들과 대형 돌무지무덤들이 복원되어 있는 지역을 답사하고 싶어.
- 정 - 나는 백제에 복속된 이후에도 한동안 대형 옹관이라는 독자적인 고분 문화를 유지했던 곳을 둘러볼 생각이야.
- 무 - 나는 우리나라 석탑의 원조라고 불리는 탑이 있고, 미륵 신앙에 따라 삼원식 가람 배치를 했다는 절터를 살펴보고 해.

	갑	을	병	정	무
①	A	C	B	D	E
②	B	A	C	D	E
③	B	C	A	E	D
④	C	B	A	D	E
⑤	C	B	D	E	A

정답: ③

* 마한과 백제의 중심지역 변천도

갑: **무령왕릉(공주)**: 벽돌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무령왕릉이 유명하다

을: **낙화암(부여)**: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인 부여의 부소산(扶蘇山)에 있는 바위로서 백제 멸망과 함께 백마강에 투신한 삼천궁녀의 설화로 유명하다.

병: **한성(서울)**: 초기 수도, 고구려 초기와 같은 계단식 돌무지무덤(석촌동)이 있음

정: **옹관 고분(나주)**: 영산강 유역(나주)의 독무덤은 다른 지방의 고분들과는 달리 독자성이 뚜렷하고 고도의 토기 제작 기술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특수한 대형의 전용 옹관을 주된 매장 시설로 하고 있어, 백제가 마한을 정복한 이후에도 독자성을 지닌 마한의 토착 집단과 문화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무: **미륵사지 5층 석탑(익산)**: 미륵사는 백제의 전형적인 일탑일금당식(一塔一金堂式)의 가람배치 구조와는 달리 남향으로 3개의 탑과 3개의 금당이 동서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이 석탑은 각 부분이 작은 석재로 구성되었으며, 그 가구(架構) 수법도 목조건물을 모방하기 위해 석탑 이전에 목탑(木塔)을 먼저 세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보기이며, 한국 석탑 양식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양식상으로 볼 때 현존하는 석탑 중에서 건립 연대가 가장 오래되고 규모도 원래 7층 석탑으로 추정한다면 20m 안팎의 거대한 탑이었을 것이다. 건립연대는 백제 말기의 무왕 때인 600~640년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유력하다

7. 다음은 삼국 시대에 세워진 어떤 비석의 내용이다. 이 비석이 건립되던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짐은 하늘의 은혜를 입고 사방으로 영토를 개척하여 널리 백성과 토지를 획득하니, 이웃 나라가 신의를 맹세하고 화친을 청하는 사절이 서로 통하여 오도다. 스스로 해아려 옛 백성과 새 백성을 두루 어루만지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말하기를 왕도의 덕화가 고루 미치지 않고 은혜가 배풀어짐이 없다고 한다. 이에 무자년 8월에 관경(管境)을 순수(巡狩)하여 민심을 살펴 위로하고, 물건을 내려주고자 한다.

- ①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사방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많은 수의 포로를 획득하였다.
- ② 장수왕의 고구려 군대가 충주 지역까지 내려와서 신라를 군사적으로 압박하였다.
- ③ 신라의 지증왕이 순장을 금지하고, 농사짓는 데 소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 ④ 신라의 진흥왕이 지금의 함경도 남부 일원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 ⑤ 신라의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완성한 후 고구려와 백제 유민을 포섭하는 정책을 폈다.

정답: ④

* 진흥왕(534~576)시대와 순수비

진흥왕: 주요 업적으로는 554년 백제 성왕(聖王)의 군사를 격퇴하고, 성왕을 사로잡아 죽였다. 561년 이사부의 공으로 대가야를 평정하고, 이어 주위의 침입에 대비, 한강 유역에 주군(州郡)과 강력한 군단을 설치하고, 이들 새로 개척한 땅에 척경비, 순수비 4개를 세웠는데, 가야 지역의 창녕비, 한강 하류 지역의 북한산비, 함경남도 지역의 함초령, 마운령의 비가 지금까지 전한다.

문화적으로는 황룡사를 건축하였으며, 576년 비로소 화랑제도를 창시했는데, 이것이 신라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 진흥왕 때에 이르러서는 신라가 군사적·문화적으로 실력을 길러 장차 삼국을 통일하는 기반을 마련한 시기이다.

① 광개토대왕(391~412)의 군사적 업적은 만주 집안에 남아 있는 광개토대왕릉비에 기록되어 있다.

② 장수왕(412~491) 때에 고구려 군대가 충주 지역까지 주둔한 사실은 중원고구려비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신라는 지증왕(500~514) 때에 순장 금지와 우경을 실시하였다.

⑤ 신라는 통일 전쟁 과정에서 백제와 고구려의 옛 지배층에게 신라 관등을 주어 포용하였다. 문무왕(661~681)이 삼국을 통일(676)한 후에는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을 9서당에 편성함으로써 민족 통합에 노력하였다.

8. 다음은 가야 연맹에 속했던 어느 나라의 시조 설화이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점]

시조는 이진아시왕인데, 그로부터 도설지왕까지 대략 16대 520년이다. 최치원이 지은 이정 스님의 전기에 이르기를, "가야산신인 정견모주가 천신인 이비가지에게 감응을 받아 뇌질주일과 뇌질청예를 낳았는데, 뇌질주일은 이진아시왕의 별칭이고, 뇌질청예는 수로왕의 별칭이다."라고 하였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

< 보 기 >

- ㄱ. 백제의 세력이 위축된 5세기 후반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가야 연맹체를 주도하였다.
- ㄴ. 5세기 이후에 농업에 유리한 입지 조건과 제철(製鐵)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중심으로 떠올랐다.
- ㄷ. 554년에 백제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였으나 크게 패하고, 오히려 562년 신라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 ㄹ. 시조 설화에서 금관가야의 맹주적 위상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 ㅁ. 합천, 거창, 함양, 산청, 아영, 하동, 사천 등지를 포괄하는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로서 국제 사회에 등장하였다.

- ① ㄱ, ㄴ, ㄷ
- ② ㄴ, ㄷ, ㅁ
- ③ ㄱ, ㄴ, ㄷ, ㄹ
- ④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⑤

* 대가야의 역사

562년 멸망.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시조 이진아시왕(伊珍阿歧王)으로부터 도설지왕(道設智王)까지 16대 520년간 존속했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 가야연맹은 4세기 후반 이후 고구려의 침입으로 큰 타격을 입고 세력이 약화되면서(백제도 위축됨) 신라의 세력권으로 들어갔다.

반면 5세기 이후에는 고령·합천 등 경상도

내륙 산간지방의 농업에 유리한 입지조건과 제철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던 소국 반파국은 5세기 후반에 새로이 시조설화를 만들며 대가야를 표방하며 합천·거창·함양·산청·아영·하동·사천 등지를 포괄하는 후기 가야연맹의 맹주로서 국제사회에도 등장하였다.

479년에 가야왕 하지(荷知)의 이름으로 중국 남제에 사신을 보내 작호를 받았고, 481년에는 백제·신라와 동맹하여 고구려를 침입하였다.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까지 진행된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가야는 백제와 신라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활동의 폭이 매우 제한되었다.

이에 이뇌왕은 신라의 법흥왕과 결혼동맹(522)을 맺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 하였고, 554년 백제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였으나 크게 패하고, 오히려 562년 신라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대가야는 정치적으로 삼국보다 발전하지 못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가야금을 제작하고 음악을 정리하는 등 높은 문화수준을 보유했다. 또한 지산동 고분을 비롯하여 본관동·중화동·양전동·종암동·쾌빈동 등 고령 지역에 분포한 유적지에서 출토되는 많은 유물들은 가야 연맹의 맹주인 대가야의 발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㉔ 대가야의 건국설화에는 정견모주설과 난생설의 두 가지가 있다. 정견모주는 가야산신으로 천신인 이비가지에게 감응되어 대가야의 이진아시왕과 금관가야의 수로왕을 낳았는데, 이진아시왕이 수로왕의 형이지만, 난생설화에 따르면 6개의 황금알 중에서 여섯 왕자가 탄생하였고, 맨 처음 태어난 왕자를 왕으로 추대하니 그가 수로왕이라고 한다.

9. 다음 사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10년 뒤에 무예가 대장 장문휴를 파견하여 해적을 거느리고 동주를 치니, 현종은 급히 문예를 파견하여 유주의 군사를 동원시켜 이를 공격하는 한편, 태복경 김사란을 사신으로 신라에 보내어 군사를 독촉하여 발해의 남부를 치게 하였다. 마침 날씨가 매우 추운데다 눈이 한 길이나 쌓여서 군사들이 태반이나 얼어 죽으니, 공을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다.

- <신당서> -

- ① 발해 무왕의 재위 시기의 상황이다.
- ② 당과 흑수말갈 사이의 직접 교류 시도가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 ③ 당은 신라를 이용하여 발해를 견제하려는 이이제이의 방책을 썼다.
- ④ 발해와 당 사이의 군사적 대결 구도는 이후 백여 년 가량 지속되었다.
- ⑤ 이 사건을 계기로 당은 대동강 이남 지역에 대한 신라의 통치를 인정하였다.

정답: ④

* 발해 무왕의 업적(당 공격)

무왕(재위:719년~737년)는 발해의 제2대 왕으로 이름은 대무예(大武藝)이다.

고왕(대조영)이 죽자 아버지를 계승하여 발해를 통치했다. 연호는 인안(仁安)이라 하였다. 일본과 수교하여 사신 왕래와 문물교환을 자주 하는 한편, 나라 안에서는 무력을 양성하여 726년(인안 8년) 아우 문예(門藝)로 하여금 당과 연결하고자 하는 흑수말갈을 공격하게 하였고, 이 공격을 둘러싸고 무왕과 의견 대립을 보이던 대문예가 중국으로 도망하자, 흑수말갈에 대한 공격은 대문예의 소환을 둘러싼 발해와 당의 대결로 전환되었다.

732년에는 장문휴로 하여금 당나라의 등주(지금의 산둥 성 옌타이)를 공격하였다. 이에 당군과 신라군은 각각 발해의 서부(요서)와 남부의 국경선을 향해 진공하였다. 그러나 당군과 신라군은 발해군의 반격과 추위로 다수의 희생자를 내고 퇴각하였다.

③ 보기에서 보다시피 당이 발해와의 싸움 때에 신라를 독촉하여 발해의 후방을 공격한 것처럼 당은 신라를 통한 발해 견제를 하였고, 발해는 일본과의 친교로 신라를 견제하였다.

④ 발해와 당의 군사적 대결 구도는 다음 왕인 3대 문왕(대흠무: 737년 ~ 793년)때에 끝나고 바로 선린 관계로 돌아섰으므로 백여 년의 대결 구도는 틀린 진술이다.

⑤ 발해를 견제키 위해 당은 할 수 없이 이전의 나.당 전쟁을 통해 악화된 신라와의 외교 관계를 깨고 대동강 이남의 통치를 인정하고 선린 관계로 갈 수 밖에 없었다.

10. 밑줄 그은 '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이해에 왕의 충애를 받던 자들이 정권을 마음대로 휘둘러 기강이 문란하고 해이해졌고, 기근까지 겹쳐 백성이 떠돌아 다니고 도적이 별 때처럼 일어났다. '그'는 몰래 왕위를 엿보는 마음을 가져 무리를 불러 모아 왕경의 서남쪽 주현을 공격하였는데, 이르는 곳마다 매아리처럼 호응하였다. 한 달 사이에 무리가 5천 명에 이르자, 드디어 무진주를 습격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다. 서쪽으로 순행하여 완산주에 이르니 그 백성들이 환영하고 위로하였다.

- <삼국사기> -

< 보 기 >

- ㄱ. 경상도 상주에서 태어나 서남 해안의 수비에 공을 세워 비장이 되었다.
- ㄴ. 본래 초적(草賊) 출신으로, 세력을 규합하여 강원도, 경기도 일대를 점령하였다.
- ㄷ. 의자왕의 원수를 갚는다고 표방하면서 과거 백제 지역 민심을 자극하였다.
- ㄹ. 미륵불의 화신임을 자처하면서 백성들을 현혹하고 폭압적인 정치를 자행하였다.
- ㅁ. 한때 강력한 군사력으로 신라의 수도를 급습하여 왕을 죽게 하고 새로운 왕을 세웠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정답: ③

* 후백제를 세운 견훤

무진주, 완산주(후백제의 영역) 등의 배경이
힌트

견훤: 본래 상주 지방의 호족 집안에서 태어나 신라 서남 지역 방위군의 장군으로 나가 세력을 키웠다. 그는 전라도 지방의 군사력과 호족 세력을 토대로 완산주(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다(900). 후백제는 차령산맥 이남의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을 차지하여, 그 지역의 우세한 경제력을 토대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등 국제적 감각도 갖추었다.

그러나 신라에 적대적(927년 신라 습격 경애왕 자살)이었고, 농민에게 지나치게 조세를 수취하였으며, 호족을 포섭하는 데 실패하는 등 한계를 갖고 있었으며, 결국 자식들의 후계 문제로 갈등을 빚다 아들인 신검에 의해 감금된 후 탈출하여 고려에 투항하는 등의 내분으로 결국 고려에 복속되었다(936)

㉠ 초적(몰락 농민이 도적화)을 기반으로 중부 지역에서 후고구려를 세운 인물은 궁예

㉡ “견훤은 상주 가은현(경북 문경 가은) 사람으로, 본래의 성은 이씨였는데, 후에 견으로 성씨를 삼았다. 아버지는 아자개이니, 농사로 자활하다가 후에 가업을 일으켜 장군이 되었다. ... 어찌 감히 의자왕의 쌓인 원통함을 씻지 아니하랴 하고, 드디어 후백제 왕이라 스스로 칭하고...”: <삼국사기>

㉢ 미륵불을 자처하며 폭압 정치를 하다 몰락한 인물은 궁예

㉣ 견훤은 927년 신라 습격하여 경애왕 자살케 하고 경순왕을 내세웠으나 이후 경순왕은 고려에 투항하게 된다(935)

11. 다음 자료를 토대로 당시 대외 무역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 대식국 객상 보나함 등이 와서 수은, 용치, 점성향, 몰약, 대소목 등의 물건을 바치니, 유사(有司)에 명하여 관대(館待)를 후하게 하도록 하고, 돌아갈 때에는 금백(金帛)도 후하게 내렸다.
- 송나라 상인들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방물(方物)을 바치고 하사품을 받아 가는 진헌(進獻) 무역을 하고, 아울러 민간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역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 < 보 기 > —

- ㄱ. 고려의 이름이 서방 세계에 알려졌다.
- ㄴ.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 ㄷ. 서해안의 해로를 통한 무역이 활발하였다.
- ㄹ. 송나라 상인들은 쌀, 인삼, 화문석, 면포 등을 수입해 갔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③

* 고려 시대 무역

고려 시대에는 국내 상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송, 요등 외국과 무역도 활발해졌다.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는 대외 무역의 발전과 함께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고려의 대외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송과의 무역이었다. 고려는 서해안의 해로를 통하여 송에서 왕실과 귀족의 수요품을 수입하는 대신에 종이, 인삼 등 수공업품과 토산물을 수출하였다.

거란과 여진은 은을 가지고 와서 농기구, 식량 등과 바꾸어 갔다. 일본은 11세기 후반부터 내왕하면서 수은, 황 등을 가지고 와 식량, 인삼, 서적 등과 바꾸어 갔다.

한편, 서역과의 교류도 활발하여 대식국인 이라 불리던 아라비아 상인들도 고려에 들어와서 수은, 향료, 산호 등을 팔았다. 이들을 통하여 고려의 이름이 서방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 인삼, 화문석은 고려의 대표적인 대송 수출품이 맞지만, 쌀 생산은 중국(송)이 당시 농업이 발전하였으므로 수입할 리가 없고, 면포의 원료인 목화(면화)는 고려 말에 원(송 멸망 이후)으로부터 들어왔기에 해당되지 않는다(1363, 문익점).

12. 다음 자료에 보이는 정치적 변동의 결과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2 점]

이해에 고구려에서 대란이 일어났다. 싸우다가 죽은 자가 2천 명이 넘었다. <백제본기>에서 말하기를, 정월 병오일에 고구려에서 중부인(中夫人, 둘째 부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나이가 8살이었다. 고구려왕(안원왕)에게는 부인이 3명 있었는데, 정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어 중부인의 아들을 세자로 삼았다. 그 외가는 추군(麴群)이었다. 소부인(셋째 부인)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가는 세군(細群)이었다. 고구려 왕이 병들어 늙자, 세군과 추군은 각각 자기네 왕자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으며, 그 결과 세군 측에서 죽은 사람이 2천 명이 넘었던 것이다.

- <일본서기>, 흠명 7년 -

- ① 전연과 백제로부터 침공이 이어져 고구려의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 ② 을파소를 등용하여 진대법을 시행한 결과, 민심은 상당히 안정되었다.
- ③ 내분을 틈타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를 협공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 ④ 고구려의 내란을 정벌한다는 명분으로 당 태종이 요동 지역을 침략하였다.
- ⑤ 부족적 5부를 행정적 5부로 개편하여 부족장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시켰다.

정답: ③

* 6세기 전반 고구려의 내분과 한강 유역 상실: <-백제(성왕) + 신라(진흥왕)

백제 성왕은 대외 진출이 쉬운 사비(부여)로 도읍을 옮기고(538),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면서 중흥을 꾀하였다. 성왕은 중앙 관청과 지방 제도를 정비하고, 불교를 진흥하였으며, 중국의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함과 아울러 일본에 불교를 전하기도 하였다. 한편, 성왕은 고구려의 내정이 불안한 틈(안장왕(519~531), 안원왕(531~545)의 피살)을 타서 신라(진흥왕)와 연합하여 일시적으로 한강 유역을 부분적으로 수복하였지만 곧 신라에게 빼앗기고, 자신도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에서 전사하고 말았다(554).

① 고구려는 고국원왕 때에 서북쪽의 전연(선바족)과 남쪽의 백제(근초고왕)의 침략을 받으며 국왕이 전사(371)하는 등 국가적 위기를 맞았다.

② 고구려는 2세기 후반 고국천왕 때 먹을 거리가 모자란 봄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갚게 하는 진대법을 실시하였다(194).

④ 당 태종은 연개소문의 정변을 트집잡아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고구려는 국경의 여러성이 함락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안시성을 중심으로 민·군이 협력하여 마침내 당군을 물리쳤다(645).

⑤ 2세기 후반 고국천왕 때에는 부족적인 전통을 지녀 온 5부가 행정적 성격의 5부로 개편되었고, 왕위 계승도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었으며, 족장들이 중앙 귀족으로 편입되는 등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화가 더욱 진전되었다.

13. 밑줄 그은 '그'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 그가 건국하고 즉위한 지 삼사일 만에 여러 신하들을 맞아 들여 만나 보고 개탄하면서 말하기를, “근년에 백성들을 혹독하게 수탈하여 토지 1경의 조(租)를 6석까지 받아 났으므로 백성들이 살기 어렵게 되었다. 나는 이것을 아주 가련하게 생각한다. 지금부터는 마땅히 1/10을 받는 제도를 써서 한 부(負)에 조 3승(升)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민간에서 거두어들이는 3년간의 조를 면제하여 주었다.
- 그는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으로 승격시키고, 발해의 유민들을 동족으로 간주하여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특히 발해 세자 대광현에게는 왕계라는 성명을 주고 선조에 대한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며, 왕실 족보에 넣어 주기까지 하였다.

<보기>

- ㄱ. 서경에 분사 제도를 실시하였다.
- ㄴ. 의창, 상평창을 설치하여 백성들을 구휼하였다.
- ㄷ. 거란의 1차 침입을 격퇴하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 ㄹ. 취민유도(取民有度)를 내세워 농민의 조세 부담을 가볍게 하였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①

* 고려 태조의 정책(취민유도와 복진정책)

• 태조는 신라 말의 사회 혼란의 근본 원인이 가혹한 고대적 조세 제도에서 비롯된 경제 모순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취민유도를 내세워 호족들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세율을 10분의 1로 낮추었다. 아울러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기구로 혹창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 태조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강력한 복진 정책을 추진하여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복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적극 개발하였고 중앙부서의 분소를 세우는 분사 제도를 실시하여(922) 예종 때까지 진행되었다(1116).

그 결과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 고려 성종 때에 평시에 곡물을 비치하였다가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의창(986)을 두었는데, 이는 고구려의 진대법과 유사한 것이었다. 또, 개경과 서경 및 각 12 목에는 상평창(993)을 두어 물가의 안정을 꾀하여 백성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려 성종 때에 거란(요)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여,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 옛 고구려 땅을 내놓고 송과 교류를 끊을 것을 요구하였다(1차 침입: 993). 그러나 외교담판에 나선 서희가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는 대신,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인정받고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4. 다음 발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기>

- ㄱ. 불교가 대중화하였다.
- ㄴ. 골품 제도가 무너졌다.
- ㄷ. 과거 제도가 실시되었다.
- ㄹ. 전주 전객제가 소멸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중세(고려)가 고대에 비해 발전한 부분

㉠ 삼국 통일 직후에 원효는 극락에 가고자 하는 아미타 신앙을 자신이 직접 전도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정토종).

㉡ 후삼국 시대가 열리며 궁예는 새로운 관제를 마련하고 골품 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 제도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계속 전쟁을 치르려고 지나치게 조세를 거두어들이고, 죄 없는 관료와 장군을 살해하였을 뿐 아니라, 미륵 신앙을 이용하여 전제 정치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백성과 신하들의 신망을 잃어 신하들에 의하여 축출되었다. 결국 고려의 건국(918)으로 고대(신라)의 폐쇄적 골품제가 무너졌는데, 이는 신라 말의 지방 세력인 호족 세력과 6두품 세력이 건국의 중추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 고려 광종 때에 과거 제도를 시행하여,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였다(958). 이는 제한적이지만 과거를 통해서 신분 상승이 가능한 발전된 모습이다.

㉣ 전주 전객제란 국가가 관료들에게 준 수조권 지급 토지에서 조를 받는 전주(관료)와 조를 바치는 전객(경작 농민)의 관계를 말하는데 전주 전객제는 조선 전기 직전법 체제 때까지 계속 존재해왔으며, 명종 대에 직전법이 소멸되면서 사전을 매개로 한 전주 전호제가 일반화 되었다.

15.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가) - 고려 초기에 제작된 철불의 하나이다.
- ② (나) - 원의 영향을 받은 석탑으로, 화려한 조각이 새겨져 있다.
- ③ (다) - 은사(銀絲)를 넣는 입사 수법이 사용되었다.
- ④ (라) - 주심포 양식과 배흘림기둥이 특징인 목조 건축물이다.
- ⑤ (마) - 신앙 결사 운동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려진 불화이다.

정답: ⑤

* 고려의 문화재들과 시대 배경

(가) **광주 춘궁리 철불**: 고려 초기에는 광주 춘궁리 철불(석굴암 본존불과 같은 신라불상 양식을 충실하게 따른 고려 초의 걸작품)과 같은 대형 철불이 많이 조성되어 시대적 특징을 이루었다.

(나) **경천사 10층 석탑**: 고려 후기의 경천사 10층 석탑(1348)은 원의 석탑을 본뜬 것으로 조선 시대로 이어졌다(원각사지 10층 석탑)

(다) **청동 은입사 포류수금문 정병**: 청동기 표면을 파내고 실처럼 만든 은을 채워 넣어 무늬를 장식하는 은입사 기술이 발달하였다. 은입사로 무늬를 새긴 청동 향로와 버드나무와 동물 무늬를 새긴 청동 정병이 대표작이다. 이러한 은입사 상감 기법은 상감 청자보다 앞서므로 상감 청자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라) **부석사 무량수전**(13C): 주심포.배흘림 양식의 대표 목조 건축물이다. 이 외에도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등이 같은 양식을 취하고 있다.

(마)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1310년(14세기)에 그려진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고려 불화이다. 일본 가가미(鏡)신사에 소장되었다.

⑤ 무신 집권 이후의 사회 변동기를 지나며 불교계에서도 본연의 자세 확립을 주창하는 새로운 종교 운동인 결사 운동이 일어났다(13세기 초, 지눌의 수선사 결사, 요세의 백련 결사)

16. (가)~(마)는 고려에서 조선에 걸쳐 영토가 확장되었거나 수복된 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 옳게 말한 사람은? [2 점]



- ① 영수 - 최영 장군이 요동 정벌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가) 지역을 수복하였지.
- ② 왕수 - 충렬왕 때에 외교적 노력으로 원으로부터 (나) 지역을 되돌려받았지.
- ③ 찬수 -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거란을 물리치고 (다) 지역을 획득하였어.
- ④ 윤수 - 윤관 장군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물리친 후 (라) 지역을 확보하였어.
- ⑤ 종수 - 김종서 장군이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을 정벌하고 (마) 지역을 장악하였어.

정답: ⑤

* 고려 ~ 조선 초 영토 지도

(가) **동녕부**: 1270년 원나라가 고려의 자비령 이북에 설치한 통치 기관. 1290년 충렬왕 때에 고려의 끈질긴 요구를 받아들여 이 지역을 고려에 반환되었다.

(나) **쌍성총관부 남부**(영흥 일대): 원이 1258년 철령 이북 지역에 설치한 기구로서 중심지는 화주(영흥) 지역이다. 후일 공민왕 때에 이 지역의 친호인 이자춘(이성계의 부)의 도움으로 무력 수복하였다(1356).

(다) **쌍성총관부 북부**(동북 9성 포함)

* 고려 예종 때에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별무반이라는 특수 부대를 편성한 다음,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 내고 동북 지방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1107).

(라) **북서 4군**(압록강 중.상류): 조선 초기 세종 때에 최윤덕 장군을 통하여 여진족을 무찌르고 이 지역을 확보하고 북서 4군을 설치하였다(1443).

(마) **동북 6진**(두만강): 조선 초기 세종 때에 김종서 장군을 통하여 여진족을 무찌르고 이 지역을 확보하고 동북 6진을 설치하였다(1449).

17. 다음 자료의 사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이 군사를 일으켜 …… 동북 양계의 여러 성에 격문을 보내어 불러 말하기를, “소문을 들으니 서울에서는 중방에서 의논하기를 ‘북계에 가까운 여러 성에는 대체로 거세고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 마땅히 가서 토벌해야 한다.’ 고 하고 군사를 이미 크게 동원하였으니, 어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스스로 주륙을 당하겠는가? 마땅히 각각 병마를 규합하여 속히 서경으로 나오라.”라고 하였다. 이에 철령(자비령) 이북의 40여 성이 와 호응하였다.

— < 보 기 > —

- ㄱ. 조위총이 주도하였다.
- ㄴ. 명종의 복위를 꾀하였다.
- ㄷ. 많은 농민들이 가담하였다.
- ㄹ. 최씨 무신 정권을 타도하려고 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②

* 조위총(서경 유수)의 난(1174~1176, 재봉기, 1179년 최종 진압): 반무신 운동

조위총은 1170년에 일어난 무인 정변 이후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정중부·이의방을 제거하고 무신정변으로 폐위된 의종을 다시 복립시켜 나라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거병했다.

이 거병은 비록 조위총이 북계 여러 성 주민의 개정에 대한 불만 분위기에 편승하여 주도한 것이었지만 그 중심 세력은 서북계 40여 성의 도령에 이끌린 서북 농민들이었다. 따라서 이 난은 서북 농민들의 무인 정권에 대한 항거의 성격이 강했다

㉠ 최씨 정권(1196~1258)이 아닌 이의방 1170~1174), 정중부(1174~1179) 무인 정권이 타도 대상이었다.

13. (가), (나)의 두 중앙 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보기 >

- ㄱ. (가)는 이원적인 체제로 구성되었으며, 중추원과 삼사는 전원 합의제로 운영되었다.
 ㄴ. (가)는 당의 율령 체제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나, 기능과 운영 방식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다.
 ㄷ. (나)의 승정원과 의금부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였다.
 ㄹ. (나)는 경국대전에 명시되어 있으며,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지향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고려(가)와 조선(나)의 중앙관제 비교

- 고려의 통치 체제는 성종 때에 마련한 2성 6부제를 토대로 하였다. 고려는 당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고려의 실정에 맞게 이를 조정하였다. 그리하여 최고 관서로서 중서문하성을 두었고, 그 장관인 문하시중

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그리고 상서성은 실제 정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6부를 두고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였다. 중추원은 군사 기밀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고, 삼사는 송과는 달리, 단순히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만 맡았다.

- 조선의 중앙 정치 체제는 경국대전으로 법제화되었다. 경관직은 국정을 총괄하는 의정부와 그 아래에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행정 기관인 6조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3사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정사를 비판하며, 문필 활동을 하면서 언론 기능을 담당하였다. 3사의 언론은 고관은 물론이고 왕이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고, 이를 위한 여러 규정이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같은 3사의 기능 강화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 시대 정치의 특징적인 모습이다(왕권 견제).

이 밖에, 국가의 큰 죄인을 다스리는 의금부,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왕권 강화),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 역사서 편찬과 보관을 담당하는 춘추관, 최고 교육 기관인 성균관 등이 있었다.

㉠ 이원적 체제는 발해(최고 기구 정당성을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 당의 율령 체제는 3성 6부 체제로 고려 중앙정치기구의 본이 되었으나 고려는 3성에서 중서성과 문하성을 합하여 2성 6부체제로 나눴다

㉢ 승정원, 의금부(왕권 강화) 3사(왕권 견제)의 기관들을 통해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19. 다음 글의 밑줄 그은 인물들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점]

공민왕은 최고 학부인 성균관을 부흥시켜 순수한 유교 교육 기관으로 개편하였다. 성균관 대사성을 겸직한 이색은 학식(學式)을 고쳐 생원 수를 늘리고 김구용, 정몽주, 박상충, 이승인, 정도전 등이 성리학을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과거 제도를 개혁하여 문학보다 정치 경륜이 높은 인재를 발탁하였다.

〈 보기 〉

- ㄱ. 소학과 주자가례를 중시하였다.
- ㄴ.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 ㄷ. 재상에게 정치적 실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하였다.
- ㄹ. 이성계 세력과 손을 잡고 전제 개혁을 단행하였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①

*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

주의: 보기의 신진사대부는 후일 급진(정도전)과 온건(정몽주)으로 분화(위화도 회군 이후)되기 이전의 세력을 말한다.

신진 사대부: 무신 집권기 이래 지방의 향리 자제들을 중심으로 과거를 통하여 중앙의 관리로 진출한 신진 세력들은 공민왕 때의 개혁 정치에 힘입어 신진 사대부로 성장하였고 이들은 성리학을 수용하여 학문적 기반으로 삼고(소학과 주자가례의 중시) 불교의 폐단을 시정하려 하였다. 신진 사대부들은 주로 과거를 통하여 정계에 진출하였다. 또한 고려 말 정치 권력과 경제력을 독점한 권문세족의 전횡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성계가 위화도회군으로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고 본격적인 개혁의 계기를 마련하자 신진 사대부들 사이에는 사원 경제의 폐단과 토지 소유 등 사회 모순에 대한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다른 의견이 존재하였다.

이색, 정몽주 등 대다수의 온건 개혁파들은 고려 왕조의 틀 안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려한 반면, 정도전 등 급진 개혁파는 고려 왕조를 부정하는 역성 혁명을 주장하였다. 급진 개혁파는 이성계 세력과 연결하여 혁명파를 이루었고 창왕을 몰아내고 공양왕을 세우면서 정치적 실권을 잡은 후 당시 최대의 쟁점이었던 전제 개혁을 단행하여 과전법을 마련함으로써(1391)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어 혁명파는 역성혁명을 반대하던 정몽주를 비롯한 온건 개혁파를 제거한 후 도평의사사를 장악하고 뒤이어 이성계는 공양왕의 왕위를 물려받아 조선을 건국하였다(1392).

㉮ 급진 개혁파인 정도전은 민본적 통치 규범을 마련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다. 또, 불씨잡변을 통하여 불교를 비판하였으며,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시켰다.

20. 다음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 보 기 >

- ㄱ. 공민왕이 복주까지 피난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 ㄴ. 화약 무기가 개발되어 국방 능력이 높아졌습니다.
- ㄷ. 최영, 이성계 등 신혼 무인 세력이 성장하였습니다.
- ㄹ. 조운 통로가 막혀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⑤

* 고려 말 왜구의 침략

고려 말에 북쪽으로부터 홍건적이 2차례 (1359, 1361) 침입해 와 공민왕이 복주(안동)까지 피난하기도 하였고, 남쪽에서는 왜구의 노략질이 계속되어 해안 지방을 황폐하게 하였다. 이에 고려는 적극적으로 남과 북의 외적에 대한 토벌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영(홍산 대첩: 1376, 논산, 부여 지역 왜구 격멸)과 이성계(황산 대첩: 1380, 운봉에서 적장 아지발도 사살)는 큰 전과를 올려 국민의 신망을 얻었고 신혼 무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그 외 최무선의 화포도 왜구 격퇴에 일익을 담당하였다(화통도감 설치: 1377, 진포 대첩: 1380).

특히 왜구는 고려 백성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 왜구는 이미 13세기부터 우리를 괴롭혀 왔으나, 14세기 중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침략해 왔다. 원의 간섭 하에서 국방력을 제대로 갖추기 어려웠던 고려는 초기에 효과적으로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지 못하였다. 주로 쓰시마 섬 및 규슈 서북부 지역에 근거를 둔 왜구는 부족한 식량을 고려에서 약탈하고자 자주 고려 해안에 침입하였고, 식량뿐 아니라 사람까지도 약탈해 갔다.

일본과 가까운 경상도 해안에 출몰하기 시작한 왜구는 점차 전라도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고, 심지어 개경 부근에도 나타났다. 많을 때에는 한해에 수십 번 침략해 왔기 때문에, 해안에서 가까운 수십 리의 땅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였다. 잦은 왜구의 침입에 따른 사회의 불안정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였다.

특히 연안 지방의 황폐화와 농민의 피난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비참하였고 조세가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왜구들의 미곡 탈취가 조운로를 따라서 이루어져 조운이 곤란하여 육운의 발달케 되었으며, 심지어 천도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주의: 보기의 침략은 공민왕 때부터 공양왕 때까지의 장기간이므로 일시적인 공민왕 때의 침략인 홍건적의 침입이 아닌 왜구의 침략이다.

21. 밑줄 그은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2 점]

그는 여러 가지 과감한 조치를 통하여 왕권을 강화시켰다.
그가 혁신 정치를 대체적으로 일단락짓는 왕 11년에 스스로
칭제 건원(稱帝建元)하고,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라 칭한
것은 그와 같은 기반 위에서 취한 자부심의 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 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여 4등급으로 구분하였다.
- ②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 제도를 실시하였다.
- ③ 광군사를 설치하고 광군을 조직하여 국방력을 키웠다.
- ④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양인 출신의 노비를 해방시켰다.
- ⑤ 대상 준흥, 좌승 왕동 등을 모역죄로 제거하고 훈신들을 숙청하였다.

정답: ③

* 고려 광종의 업적

고려 초기에 왕권 강화에 힘쓴 대표적인 왕이다. 주요 업적으로는

첫째, 광덕·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여 자주의를 표현하였고.

둘째, 956년에는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이는 원래는 노비가 아니었으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거나 빚을 갚지 못하여 강제로 노비가 된 자들을 선별하여 노비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주는 것이다. 이것은 호족에게 귀속되던 세를 국가에 환원시키고 호족의 사병을 감소시킴으로써 호족의 약화와 왕권의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셋째, 958년에는 후주에서 고려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고려에서는 처음으로 과거제도를 실시하여 인재를 등용하였다. 이는 능력을 갖춘 새로운 관료층을 양성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백관의 복제를 제정하여 관료의 서열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수도 개경을 황도(皇都)로 개칭하고 서경(西京), 즉 평양을 서도(西都)라고 하였다.

넷째, 960년에는 서사(評農書史) 권신(權信)이 대상(大相) 준흥·좌승 왕동 등이 역모를 꾀한다고 고발을 빌미로 호족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을 하였다

다섯째, 4색(자, 단, 비, 녹)의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여 기강을 잡았다.

③ 광군: 고려 정종 때에 거란군의 침입에 대비하여 조직된 특수군단.

22. 다음 상소문을 수용하여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 점]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 짐집마다 찾아가 매일같이 돌보는 것은 아니므로 수령을 나누어 보내 백성들의 이해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조(聖祖)께서도 통합한 뒤에 외관을 두고자 하였으나, 대개 초창기였으므로 일이 번거로워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가만하-보건대 향호(鄉豪)가 대양 공무를 빙자하고 백성을 침포(侵暴)하니 그들이 견디 내지 못합니다.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비록 일시에 다 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먼저 여러 주현을 아울러 한 사람의 관원을 두고, 그 관원에 각기 2~3원을 설치하여 애민하는 일을 맡기소서.

- ① 12목을 설치하였다.
- ② 3경 제도를 실시하였다.
- ③ 전국을 5도와 양계로 나누었다.
- ④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실시하였다.
- ⑤ 향, 부곡, 소를 일반 행정 구역으로 바꾸었다.

정답: ①

* 최승로의 시무 28조와 지방관 파견(성종)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하였다가(983), 10도 12주로 변경하였다(995). 지방의 중소 호족을 향리로 편입하여 통제하였다.

② 3경 제도: 개경, 서경, 동경(->남경)을 말하며 이미 고려 건국 초(태조)부터 성립되었다

③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은 5도 양계와 경기인데 현종 때에 완성되었다.

5도는 상설 행정 기관이 없는 일반 행정 단위로, 안찰사가 파견되어 도내의 지방을 순찰하였다. 도에는 주와 군·현이 설치되고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북방의 국경 지대에는 동계·북계의 양계를 설치하여 병마사를 파견하고, 국방상의 요충지에는 진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특수 지역이었다.

④ 고려 태조는 지방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심관(부호장 이하 지방의 자치적인 관리를 지배한 관직)과 기인(호족의 중앙으로의 인질 파견) 제도를 활용하였다.

⑤ 특수 부락인 향.소.부곡을 일반 행정구역으로 바꾼 것은 조선 시대이다

23.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왕도(王都)의 제도는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 앞쪽에 조정, 뒤쪽에 시장이다. ㉢시전은 소민(小民)의 무역이 매여 있고, 공공 기관의 수용에 근본이 되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시전에는 큰 것이 여섯이 있는데, 선전, 면포전, 면주전, 내외어물전, 지전, 저포전 등으로 이를 ㉣육의전이라 한다. 행상이 모여서 교역하고 물러가는 것을 장(場)이라 하니, ㉤종루, 이현, 칠패 같은 것이다.

- ① ㉠은 국왕이 역대 임금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다.
- ② ㉡은 토지와 곡물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 ③ ㉢은 점포세와 상세를 부담하며 경시서의 통제를 받았다.
- ④ ㉣은 신흥통공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⑤ ㉤은 조선 초기에 등장한 것으로, 5일마다 장이 열렸다.

정답: ⑤

* 조선 서울 도성의 구조와 상인

종묘: 조선 왕조의 왕과 왕비, 그리고 죽은 후 왕으로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

는 사당

사직: 백성의 복을 위해 제사하는 국토의 신(神)인 사(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을 아울러 이르는 말. 종묘(宗廟)와 더불어 사직단을 지어서 백성을 위하여 사직에게 복을 비는 제사를 지냈다.

시전: 도성의 시장인 시전은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종로 거리에 상점가를 만들었다. 여기에 개경에 있던 시전 상인을 한양으로 이주시켜 장사하게 하는 대신에 점포세와 상세를 거두었다. 시전 상인은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이에 대한 감독을 위해 경시서(뒤에 평시서로 개칭)를 설치하여 물가조절 · 상업세 징수 · 도량형기의 단속 등 시전의 행정사무를 맡아보게 하였다

육의전: 국가로부터 독점적 상업권을 부여받고 국가 수요품을 조달한 여섯 종류의 큰 상점. 이들에게 사상(私商)인 난전을 단속하는 금난전권이라는 독점적 상업권을 부여하는 대신, 궁중 · 관청의 수요품, 특히 중국으로 보내는 진헌품 조달도 부담시켰다.

선전(비단상점), 면포전(무명상점), 면주전(명주상점), 지전(종이상점), 저포전(모시, 베상점), 내외어물전(생선상점)을 말한다.

④ 정조 때에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신흥통공(1791)을 반포하였으나 육의전은 제외되었다

⑤ 장시(지방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던 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 종루, 이현, 칠패는 주로 난전(사상)의 활동지이다

24. 다음의 밑줄 그은 제도의 시행을 주장했던 세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지난번에 아뢰었던 천거로 인재를 뽑는 일은 여럿이 의논한 일입니다. …… 혹 나중에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고, 혹 공평하지 못할까 염려되기는 하나 대체로 좋은 일이니, 비록 한두 사람이 천거에 빠진다 하더라도 주저할 것 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공론이 없는 때라면 그만이었지만, 공론이 있으니 어찌 한두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좋은 일을 폐지하겠습니까?

- <중종실록> -

- ① 정치 참여가 제한되었던 종친들을 등용하려 하였다.
- ② 주자가례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유교 윤리를 보급하였다.
- ③ 과거와 음서를 통해 관직을 독점하고 공음전의 혜택을 받았다.
- ④ 관학파의 학풍을 계승하였으며, 문물 제도의 정비에 기여하였다.
- ⑤ 소격서를 폐지하고 반정 공신들의 위훈을 삭제하고자 하였다.

정답: ⑤

* 조선 중기(16C) 조광조의 개혁과 사림세력

보기의 밑줄은 사림이 주장하던 **현량파**이다

사림파: 조광조를 비롯한 당시의 사림은 경연의 강화, 언론 활동의 활성화, 위훈의 삭제, 소격서의 폐지, 소학의 보급, 방납의 폐단 시정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이들은 3사의 언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 표방하면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신들의 반발로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은 대부분 제거되었다(기묘 사화: 1519).

그 뒤 중종이 훈구·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다시 사림을 등용하기도 하였으나, 명종이 즉위하면서 외척끼리의 권력 다툼에 휩쓸려 사림 세력은 또다시 정계에서 밀려났다(을사 사화: 1545). 이에 따라 명종 때에는 윤원형을 비롯한 왕실 외척인 척신들이 정국을 주도하였고, 사림의 세력은 크게 꺾였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사림 세력은 서원과 향약을 통하여 향촌 사회에서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① 태종 때에 정치 참여가 제한되었던 종친들이 세조 때에 등용되어 훈구파의 한 축을 이루었다.

② 세종 때에는 국가의 행사를 오례에 따라 유교식으로 거행하였으며, 사대부에게도 주자가례의 시행을 장려하여 유교 윤리가 사회 윤리로 자리잡게 하였다.

③ 고려 문벌 귀족에 대한 설명

④ 훈구파에 대한 설명

25. 다음은 어느 역사책 서문의 일부이다.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듣건대, 새 도끼자루를 다듬을 땐 현 도끼자루를 표준으로 삼고, 뒤 수레는 앞 수레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교훈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대개 지난 시기 흥망이 앞날의 교훈이 되기에 이 역사책을 편찬하여 올리는 바입니다. 이 책을 편찬하면서 범례는 사마천의 사기에 따랐고, 기본 방향은 직접 왕에게 물어서 결정했습니다. '본기'라고 하지 않고 '세가'라고 한 것은 대의명분의 중요함을 보인 것입니다. 신우, 신창을 세가에 넣지 않고 열전으로 내려놓은 것은 왕위를 도적질한 사실을 엄히 밝히려 한 것입니다. 충신과 간신, 부정한 자와 공정한 자를 다 열전을 달리해 서술했습니다. 제도 문물은 종류에 따라 나눠 놓았습니다.

- ① 내용을 축약하여 <고려사절요>로 간행하였다.
- ② 고려 왕조의 역사를 기전체의 형식으로 편찬하였다.
- ③ 우리나라의 역사를 소중화(小中華)의 역사로 파악하였다.
- ④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통사 형식으로 간행하였다.
- ⑤ 기자 조선을 중시하고 유교 문화에 어긋나는 것을 이단시하였다.

정답: ②

* 조선 초기 기전체 사서 '고려사'

보기의 자료는 기전체 양식의 고려사이다. 우리 역사에 기전체 양식의 역사서는 고려 중기 김부식이 저술한 삼국사기와 조선시대에 쓰여진 고려사 2개 뿐이다.

본문 중에 고려 말의 신우(우왕), 신창(창왕)의 기재와 표현을 통해서(폐가입진의 논리: 신돈의 아들로 파악) 고려사임을 알 수 있다

고려사: 조선 초기 1392년부터 1451년까지 59년 동안 조선 태조, 태종, 세종, 문종에 이르기까지 만들고 수정한 고려 시대에 대한 역사서로서, 기전체(紀傳體)로 된 고려 왕조의 정사이다. 32명의 왕이 다스린 475년 동안의 각종 사건과 인물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단순한 기록이라기보다는 후세에 지침이 될 만한 정치적 근거로서 조선을 건국한 주도 세력인 사대부들의 역사관을 담고 있다. 고려 왕의 기록에 관해 본기(本紀: 황제의 역사)를 두지 않고 세가(世家: 제후들의 역사))를 두고 있다.

① '고려사절요'는 고려시대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자치통감>을 모범으로 하여 1452년(조선 문종 2) 2월에 춘추관에서 편찬한 편년체 역사책이므로 내용(관점)에서 기전체의 '고려사'와는 다르다

③ 우리나라는 소중화로 인식하는 역사 파악은 사림 집권 이후인 16세기 이후이다

④ 서거정의 동국통감에 대한 설명이다 (1485)

⑤ 기자조선을 중시하는 역사 서술은 16세기 이이의 '기자실기' 저술 이후이다.

26. 다음의 (가)와 (나) 사상에 대하여 옳게 말한 사람은? [3점]

(가) 고대의 민간 신앙과 신선술을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도가 사상과 음양·오행의 이론 등이 첨가되어 성립되었다. 불로장생과 현세 구복을 추구하였다.

(나) 산세와 수세를 살펴 도읍, 주택, 농묘 등을 선정하는 일종의 지리학으로서, 지형과 지세에 따라 국가나 개인의 길흉화복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 ① 미해 - (가)는 고려 시대에 전래되어 교단이 성립되었고, 민간 신앙으로 널리 퍼진 종교야.
- ② 다해 - (가)는 조선 시대에 도첩제의 실시로 교세가 약화되었고, 교단의 토지도 몰수당했어.
- ③ 명해 - (나)는 고려 시대에 서경 천도 추진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어.
- ④ 은해 - (나)는 조선 시대에 처음으로 전래되었고, 한양 천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지.
- ⑤ 정해 - 조선 시대에는 (나)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소격사에서 제천 행사를 주관하도록 하였어.

정답: ③

* 도가 사상과 풍수지리설

(가) **도가 사상**: 민간에서 인기, 신선사상, 불로장생, 현세구복 등이 힌트

(나) **풍수지리설**: 산세지형이 인간의 길흉화복을 결정짓는다는 사상

① 도교는 고구려 보장왕 연개소문 집권기에 이미 중국 당에서 들어왔음

② 도첩제는 승려에 대한 등록제로서 불교통제와 관련 있음

③ 풍수지리설은 묘지나 국가의 도읍지 선정에 큰 영향을 끼쳤고 특히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④ 풍수지리설은 신라 말에 승려 도선에 의해서 보급되었음

⑤ 불로장생과 현세의 구복을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교는 여러 가지 신을 모시면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빌며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였다. 그리하여 고려시대에는 도교 행사가 자주 베풀어졌고, 궁중에서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초제가 성행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초제를 주관하는 관청으로 소격서를 두었다.

27. 다음과 같은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점]

붕당은 싸움에서 생기고 싸움은 이해관계에서 생긴다. 이해관계가 절실하면 붕당이 깊어지고, 이해관계가 오래될수록 붕당이 견고해지는 것은 당연한 형세이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열 사람이 함께 굶주리고 있는데, 한 그릇의 밥을 같이 먹게 되면 그 밥을 다 먹기도 전에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 조정의 붕당도 어찌 이와 다를 것이 있겠는가? …… 대개 과거 제도가 변잡하여 인재를 너무 많이 뽑으며 애중에 치우쳐서 진퇴가 일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이 밖에도 벼슬길이 분분하게 많으니, 이것이 이른바 관직은 적은데 과거에 응시한 사람은 많아서 모두 조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당파가 생긴 뒤로는 아무리 총명하여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 중립을 지켜 시비를 가리는 자를 용렬하다고 하고, 붕당을 위해 죽어도 굶하지 않는 자를 절개가 뛰어나다고 한다. 또, 영예와 치욕이 갑자기 뒤바뀌니 사람들이 어찌 붕당을 만들어 싸우지 않겠는가?

- <곽우록> -

< 보기 >

- ㄱ. 과거 시험 합격자의 출신 서원을 알아본다.
- ㄴ. 훈구파와 사림파가 대립한 원인을 조사해 본다.
- ㄷ. 예송이나 환국과 관련하여 권력의 향방을 정리해 본다.
- ㄹ. 세도 정치하에서 고위 관직에 올랐던 사람들의 출신 가문을 살펴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조선 후기 붕당 정치의 폐해 비판

보기의 자료는 실학자 성호 이익의 ‘곽우록’인데, 이는 당시 붕당 정치의 원인(한정된 관직을 둘러싼 싸움)을 분석하고 폐해를 비판하고 있다.

㉠ 중앙의 붕당 정치는 지방의 서원 즉 학연과 관련이 깊다. 예를 들면 괴산의 화양서원은 송시열계 노론, 충주의 운곡서원, 팔봉 서원은 남인과 관련되었다.

㉡ 사회에 대한 설명이고 이는 붕당 이전 훈구와 사림의 대결구도를 말한다

㉢ 붕당 정치가 격화되어 현종 때에는 예송 논쟁(궁중 의례의 적용문제, 특히 복상(服喪)기간을 둘러싼 서인과 남인의 대결 구도) 속중. 영조 초에는 환국(국왕의 권력에 의한 정치적 급변: 서인과 남인의 교차 집권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서인의 일당전제가 됨)의 형태로 나타남

㉣ 세도정치(붕당 정치와 영.정조의 탕평기를 거친 후 순조~철종 시기의 왕실의 외척과 같은 특정 가문이 정치권력을 독점한 정치 형태)는 붕당은 물론, 탕평파와 반탕평파 같은 정치 집단 사이의 대립적인 구도도 없어지고, 중앙 정치를 주도하던 정치 집단은 소수의 가문 출신으로 좁아지면서 그 기반이 축소되었다.

28. 밑줄 친 '이것'에 대해 적절하게 추정한 것은? [2점]

이제부터 우리 고을 선비들이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근본으로 하고 국가의 법을 준수하며 집에서나 고을에서 각기 질서를 바로잡으면 나라에 좋은 선비가 될 것이요, 출세하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서로 의지가 될 것이다. 굳이 약속을 만들어 서로 권한 필요도 없으며, 벌을 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진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올바른 것을 어기고 예의를 해침으로써 우리 고을 풍속을 무너뜨리는 자는 바로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백성이다. 벌을 주지 않으려 해도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부득이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

- ① 지방 사람들의 농민 지배 강화에 기여하였다.
- ② 군현을 단위로 유향소의 조직과 권능을 규정하였다.
- ③ 공동 연대와 상부상조를 위한 공동 노동 조직이었다.
- ④ 선현에 대한 제사와 양반 자제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 ⑤ 조광조 등의 노력으로 중종 때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정답: ①

* 조선 중기 사림과 향약

조선 중기(16세기) 이후 지방 사족들은 그들 중심의 향촌 사회 운영 질서를 강구하고 향약 등의 보급을 통하여 면리제와 병행된 향약 조직을 형성해 나갔다.

향약은 중종 때 조광조에 의하여 처음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향안(재지 사족의 명단), 향규(유향소의 규칙), 향약(사족 중심의 향촌 자치 규약) 등은 군현 내에서 지방 사족이 그들의 지배를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였다.

본래 향촌에서는 마을 단위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는 풍습이 있었다. 향약은 이러한 전통적 공동 조직과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유교 윤리를 가미하여 교화 및 질서 유지에 알맞게 구성한 것이다.

향약은 조선 사회의 풍속 교화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향촌 사회의 질서 유지와 함께 치안까지 담당하는 등 향촌의 자치 기능을 맡았다. 향약의 보급으로 지방 사림의 지위는 강화되었으나, 지방 유력자가 주민을 위협, 수탈하는 배경을 제공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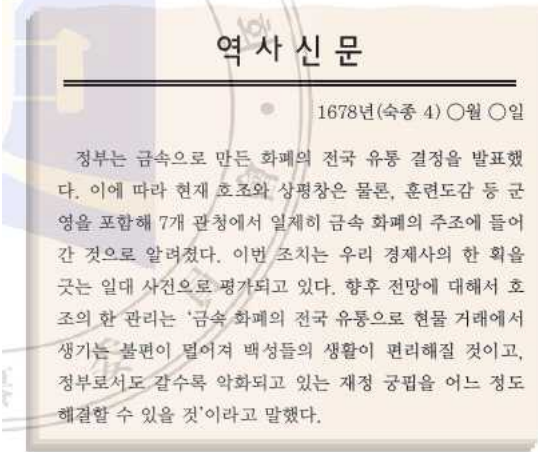
① 사림은 향약을 시행하고 도덕과 예학의 기본 서적인 소학을 보급하여 향촌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③ 두레에 대한 설명

④ 서원에 대한 설명

⑤ 향약은 중종 때(조광조) 처음 등장한 것이지만 바로 전국적으로 보급된 것이 아니다

29. 다음 역사 신문과 같은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 나타난 사회
상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보기 >

- ㄱ. 당시 금속 화폐로는 해동통보, 해동중보, 삼한통보 등이 있었다.
- ㄴ. 18세기에는 금속 화폐가 많이 발행되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 ㄷ. 18세기 후반부터는 세금과 소작료도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하였다.
- ㄹ. 지주나 대상인들은 금속 화폐를 고리대나 재산 축적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 ㅁ. 금속 화폐의 주조에 사용되는 구리의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채굴하는 것을 엄금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정답: ④

* 조선 후기 화폐 사용의 발달(상평통보)

조선 후기에는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교환의 매개로서 금속 화폐, 즉 동전이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정부도 화폐의 유통에 힘써 인조 때 동전을 주조 하여 개성을 중심으로 통용시켜 그 쓰임새를 살펴보고, 효종 때에는 이를 널리 유통시켰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세금과 소작료도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누구나 동전인 상평통보만 가지면 물건을 살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동전은 교환 수단일 뿐 아니라 재산 축적의 수단이기도 하였다. 동전의 발행량이 상당히 늘어났는데도 제대로 유통되지 않아 시중에서 동전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지주나 대상인들이 화폐를 고리대나 재산 축적에 이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환, 어음 등의 신용 화폐가 점차 보급되어 갔다. 이는 이 시기 상품 화폐 경제의 진전과 상업 자본의 성장을 보여 주는 것이다.

㉠ 해동통보, 해동중보, 삼한통보 등은 고려 숙종 시대(1102)의 화폐임

㉡ 전황(화폐 부족)은 있어도 인플레이션(통화량 팽창)은 없음

㉢ 광산은 본래 정부가 독점하여 필요한 광물을 채굴하였다. 정부는 17세기 중엽부터 민간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고 세금을 받는 정책을 실시하였다(설점수세제). 이에 따라 민간인에 의한 광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30.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났던 시기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밭에 심는 것은 9곡(穀)뿐이 아니다. 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 등의 농사를 잘 지으면 조그만 밭이라도 얻는 이익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서울 내외의 읍과 도회지의 파밭, 마늘밭, 배추밭, 오이밭에서는 10무(畝)의 땅으로 수백 냥을 번다. 서쪽 지방의 담배밭, 북쪽 지방의 삼밭(麻田), 한산 지방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밭, 강진의 고구마밭, 황주의 지황밭은 모두 다 논 상상등(上上等)보다 그 이익이 10배에 달한다.

- 〈경제유표〉 -

〈 보 기 〉

- ㄱ.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사상(私商)들이 성장하였다.
- ㄴ.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 ㄷ. 농업의 생산력이 증가하였고,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활발하였다.
- ㄹ. 대지주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어 타조법의 비율이 늘고 있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상품·특용 작물 재배되던 조선 후기 모습

보기 내용의 요지는 밭농사 작물 재배가 팔기 위한(상업적)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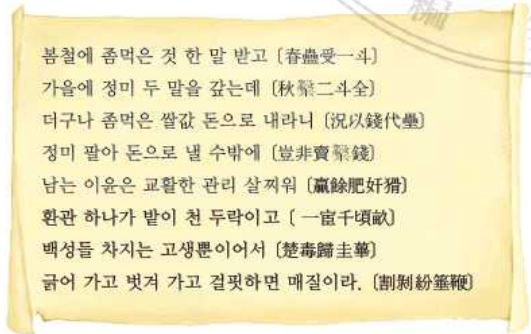
• 농민들은 시장에 팔기 위한 작물을 재배하여 가게 수입을 증가시켰다. 장시가 점차 증가하여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농민은 쌀, 목화, 채소, 담배, 약초(상품 작물) 등을 재배하여 팔았다. 특히, 쌀의 상품화가 활발하였다. 쌀은 이 시기에 이르러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나 장시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었다. 쌀의 수요가 늘면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하였다.

㉠ 조선 후기는 조선 전기의 시전 상인(어용 상인)의 독점권이 무너지며(공인의 등장과 금난전권의 폐지) 사상(민간 상인)이 크게 성장하였다.

㉡ 직전법(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지급, 세조)에 대한 설명이며 이미 16세기(조선 중기 명종)에 직전법은 폐지되고 조선 후기에는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었다.

㉢ 조선 후기는 타조법(정률제)에서 도조법(정액제)으로 발전하였다.

31. 다음 시의 내용과 관련된 사회 제도에 대한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방군수포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② 수미론이 대두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③ 결포론, 호포론, 유포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④ 허류(虛留), 반백(半白), 반작(反作)이란 무엇인가?
- ⑤ 공법에서 영정법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어떠하였는가?

정답: ④

* 환곡(춘대추납제)의 문제점

• 봄에 대여 받아 가을에 갚게 한 것이 힛트.

• 환곡은 봄에 관청의 곡식을 농민들에게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거두어들이는 것이었다. 이자는 원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관청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면서 세금처럼 되고 말았다. 여기에 탐관오리들의 토색질까지 겹쳐 실제로는 고리대 구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양반 지주들은 환곡을 빌리는 것을 기피하고, 가난한 농민들만 원치 않는 환곡을 떠맡아 높은 이자를 물어야 했다.

① 방군수포제는 군역과 관련되어 있다

② 수미론은 공납의 문제점 해결 방안이고 대동법으로 이어졌다.

③ 결포론, 호포론, 유포론은 모두 군역과 관련된 대안이다

④ 허류(창고에는 없는 곡식을 있는 것처럼 장부에는 있는 것같이 꾸미는 행위), 반백(반은 겨를 섞어서 1석을 2석으로 만드는 행위), 반작(출납관계를 허위보고(거짓문서)하여 잉여분을 차지하는 행위) 등은 모두 환곡의 문란 양상이다.

⑤ 영정법은 전세에 관한 수취제도이다

32. 다음 제시문의 취지와 부합하는 주장은? [3 점]



그러나 경(經)에 실린 말이 그 근본은 비록 하나이지마는 그 실마리는 천 갈래만 갈래이니, 이것이 이른바 하나로 모이는 데 생각은 백이나 되고, 같이 돌아가는 데 길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독창적인 지식과 깊은 조예가 있으면 오히려 그 귀추의 갈피를 다하여 미묘한 부분까지 놓침이 없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반드시 여러 장점을 널리 모으고 조그마한 선도 버리지 아니하여야만 대략적인 것도 유실되지 않고, 알고 가까운 것도 누락되지 아니하여, 깊고 심원하고 정밀하고 구비한 체제가 비로소 완전하게 된다. …… 이는 선유(先儒)들이 세상을 깨우치고 백성을 도와주는 뜻에 티끌만 한 도움이 없지 않기를 바란 것이니, 이론(異論)하기를 좋아하여 하나의 학설을 수립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 ①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다. 퍼내면 차고, 버려 두면 말라 버린다.
- ② 한 마을을 단위로 하여 토지를 공동 경작하고 그 수확량을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자.
- ③ 어찌 주자만이 진리를 안단 말인가? 공자가 다시 살아면 내 학설이 옳다고 할 것이다.
- ④ 저 대씨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어떤 땅인가? 바로 고구려 땅이다.
- ⑤ 왕이 스스로 성인인 채하고 오직 방자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 국가를 멸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정답: ③

* 성리학의 교조화를 비판하다 사문난적으로 몰린 자들: 윤휴, 박세당

성리학을 상대화하고 6경과 제자백가 등에서 모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찾으려는 경향도 17세기 후반부터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윤휴와 박세당이다. 이들은 주자의 학문 체계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시 서인(노론)의 공격을 받아 사문난적으로 몰렸다.

보기의 자료는 박세당의 ‘사변록’으로서 주자(朱子)의 학설을 비방했다 하여 조야(朝野)의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① 박제가의 우물물 비유: 적절한 소비 강조

② 정약용의 여전제(마을 단위의 토지 공동 경작, 공동분배)

③ 박세당은 성리학이 스승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자유로운 비판을 강조하였다. 곧 주자가 높고 원대한, 형이상학적인 최고의 선(선)의 정신을 통하여 인식의 절대성을 강조하였는 데 반하여 일상적 일용 행사를 통한 인식의 타당성을 강조하여 인식의 상대성을 제공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주자가 인간 본성의 선천성을 주장한 점을 비판하고 인간의 도덕적 판단력을 인정함으로써 인간의 능동적인 실천 행위와 주체적인 사고 행위를 강조하고, 노자의 도덕경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조선 후기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리학적 흐름에 대하여 포용성과 개방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④ 유득공의 ‘발해고’

⑤ 김성일(동인)의 선조에 대한 직언

33.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활동 무대는 충청·경기·경상도 일부 지역이었다.
- 양반·부호, 관청, 장시 등을 습격하여 무기와 재물을 약탈하고, 그 중에서 일부를 빈민에게 분배하기도 하였다.
- 외국 상인 출입 금지, 금광 채굴 엄금, 철도 부설권 양도 금지, 곡물 수출 금지 등을 주장하였다.
- 곡가 안정, 악형 철폐, 행상인에 대한 정세 금지 등을 요구하였다.

- ① 일제의 남한 대토벌에 의해 해체되었다.
- ②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 ③ 해산 군인들의 합류로 세력이 강화되었다.
- ④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한 암살단을 조직하였다.
- ⑤ 동학 농민군의 잔여 세력과 행상, 유민, 노동자, 결인 등으로 조직되었다.

정답: ⑤

* 활빈당(活貧黨): 조선 무장 농민 집단)

1899년~1904년 사이에 한국의 남부지방에서 일어난 농민군 집단 중에서 가장 강대한 세력을 가졌던 집단이다.

동학 농민 전쟁 후 잔존한 농민군들은 일시 1896년의 을미 의병 운동에 가담했다가 해산 후 화적(火賊)의 상태로 있으면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운동에 희망을 걸다가 그 운동마저 좌절당함을 보자, 1899년부터는 여러 가지 이름의 농민군 집단을 형성하여 저항운동을 전개하였는데(예: 영학당) 활빈당은 그 중의 대표적인 단체이다

활빈당은 구체적 요구사항으로 반봉건·반침략 투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한사민논설'(大韓士民論說) 13조목을 내외에 천명하고, 양반부호가의 습격·약탈, 관청습격, 외국인에 대한 보복·약탈을 했고, 때로는 수적(水賊)이 되어 바다에서 상선을 습격·약탈하기도 했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본군과 경찰의 무력탄압으로 지도부가 붕괴되었다. 그리하여 일부는 농민무장대의 형태로 활동을 계속했고, 일부는 독자적인 의병부대를 만들거나 다른 의병부대에 흡수되어 항일 의병전쟁의 대열에 합류했다.

① 남한 대토벌 작전이란, 일본 제국이 1909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2달간에 걸쳐서 대한제국 내 전라남도과 그 외곽 지대에서 저항을 했던 항일의병들을 진압하기 위해 세운 토벌작전이다

② 황무지 개간권 요구 저지 단체: 보안회(1904)

③ 정미의병(1907)

④ 오적 암살단: 나철, 오기호

⑤ 활빈당은 구성원은 동학군의 잔존 세력 및 여러 민초 집단들이다.

34. 다음 사실이 실렸던 신문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2 점]

저 돼지와 개만도 못한 우리 정부의 소위 대신자들이 영리를 바라고 텃없는 위협에 겁을 먹어 놀랍게도 매국의 도적을 지어 4천 년 강토와 5백 년 사적을 다른 나라에 갖다 바치고 2천만 국민으로 타국인의 노예를 만드니, 아아, 분하다! 우리 2천만, 타국인의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 기자 이래 4천 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줄연히 멸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 ① 천도교의 기관지로서, 국한문 혼용체로 발간되었다.
- ② 대한 협회의 기관지로서, 계몽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 ③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고종 황제의 친서를 발표하였다.
- ④ 순 한글로 간행되었으며, 일반 대중을 위한 사회 계몽 기사를 많이 실었다.
- ⑤ 한문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주로 구독하였으며, 국한문 혼용체로 발간되었다.

정답: ⑤

* '시일야방성대곡'과 황성신문

한말 1898년 9월 5일에 창간된 일간 신문.

한문을 이해하는 특권층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한문을 써서 일반 대중의 지식계발을 꾀함. 그러나 주된 대상은 식자(識者)층이다.

한글 전용의 <제국신문>을 '암(雌)신문', 한문을 섞어 쓰는 <황성신문>을 '수(雄)신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11월 20일자 사설란에 장지연이 <시일야방성대곡 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제목으로 나라를 팔아먹는 악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글로 장지연은 70여 일 간 구류되고 <황성신문>도 80여 일 간 정지당했다가, 1906년 2월 12일 신문이 속간되었으나 장지연은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어 3대 사장에 남궁훈, 1907년 5월 4대 사장에 김상천, 그해 9월 5대 사장에 유근, 1910년 6월 6대 사장에 성선경이 취임했다.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일제가 '대한'이나 '황성'과 같은 단어를 못 쓰게 하자 <한성신문>으로 바꾸었다가 1개월도 안 된 9월 15일 제 3470호로 폐간되었다. <제국신문>과 함께 한말의 대표적인 민족지였다

- ① 천도교 기관지: 만세보(1906)
- ② 대한협회 기관지: 대한민보(1909)
- ③ 고종의 친서 게재: 대한매일신보(1904)
- ④ 순한글 대중 계몽신문: 제국신문(1898).

* 독립신문도 대중 계몽의 기사를 게재하였지만 한글판(초기)과 영문판으로 되어있다.

35. ㉠~㉣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광복군을 창설할 수 있었던 데는 중국 관내에서 양성되고 있던 군사 간부들과 만주에서 이동해 온 독립군 세력이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중국 관내에서는 1910년대 이래 운남 강무당, 귀주 강무당, ㉠황포 군관 학교, 중국 중앙 군관 학교를 비롯한 중국의 각종 군관 학교에서, 그리고 1930년대에는 ㉡김구와 ㉢김원봉이 낙양 군관 학교와 조선 혁명 간부학교를 직접 설립, 운영하면서 군사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었다. 또, 1930년대 중반에는 만주에서 활동하던 ㉣한국 독립군, ㉤조선 혁명군 등 만주 독립군 세력들이 중국 관내로 이동해 왔다.

- ① ㉠ - 조선 의열단 단원들이 입학하여 군사 교육 및 간부 훈련을 받았다.
- ② ㉡ - 윤봉길과 이봉창 의거를 일으킨 한인 애국단을 이끌었다.
- ③ ㉢ - 민족 유일당 건설을 목표로 민족 혁명당을 건설하였다.
- ④ ㉣ - 김좌진, 김동삼 등이 중심이 된 혁신 의회를 개편하여 결성한 군사 조직이었다.
- ⑤ ㉤ - 지청천의 지휘하에 중국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정답: ⑤

* 조선혁명군(30년대초 남만주에서 활약)

1930년대 초반 남만주지역에서 활약한 항일 무장군. 국민부가 모태가 되어 조직한 조선혁명당의 당군(黨軍)이다.

1932년 초에는 무장 부대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 총사령관에 양세봉, 참모장에 김학규가 임명됨으로써 새로이 대오를 가다듬고 본격적인 항일전을 전개하여 중국의용군과 연합하여 홍경성, 영릉가 전투에서 큰 승리를 이끌었다.

그러나 1934년 9월 일본군과 격전을 치르면서 총사령 양세봉이 전사한 뒤 김호석이 총사령에 임명되면서부터 일본군 대부대의 본격적인 공격이 전개되어 그 세력이 점차 약화되어갔다. 이후 중국관내로 이동하였다

① 중국국민당의 장개석이 설립한 군사학교로서 의열단을 이끌었던 김원봉 등이 입교하여 교육받았다

② 김구는 임정의 침체분위기를 극복하고자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다(1926)

③ 1920년대 의열단을 이끌던 김원봉은 30년대 황포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국 관내에서 조선민족혁명당이라는 민족유일당 조직체를 주도하고(1935) 조선의용대라는 군사조직을 이끌다(1938), 임정 산하의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다.

④ 한국독립군: 북만주에서 활동하던 혁신 의회를 모태로 하여 지청천이 이끌며 30년대 초반 쌍성보, 사도하자 전투에서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큰 승리를 이끌었던 독립부대 30년대 중반 이후 조선 혁명군과 마찬가지로 중국 관내로 이동하였다. 우파적 성격의 부대

⑤ 지청천과 쌍성보 전투는 한국독립군이다

36. 다음 격문을 발표할 당시, 동학 농민군의 동향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2점]

우리가 의를 들어 여기에 이름은 그 본뜻이 결단코 다
른 데에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의 속에서 건지고 국
가를 반석 위에 두자 함이라. 안으로는 탐착한 관리의 머
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코자 함
이라.

양반과 부호의 앞에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
령의 밑에 굴욕을 받는 소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
은 자라.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
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 ① 황토현에서 감영 군대를 물리쳤다.
- ② 백산에 모여 4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 ③ 전주성에서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었다.
- ④ 고부 관아를 점령하고 아전을 처벌하였다.
- ⑤ 공주 우금치에서 관군, 일본군과 맞붙었다.

정답: ②

*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백산 봉기)

-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

<고부봉기>: 1894.1.10

- 직접적 원인: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
- 전봉준이 사발통문을 돌려 1천여 명의 농민을 이끌고 고부 관아 습격 → 관리들을 징벌한 뒤 해산
- 정부는 조병갑을 탄핵(후임 박원명)하고 안핵사 파견

<1차 봉기>: 1894.4, 반봉건적, 남접 중심

- 안핵사(이용태)가 봉기 관련자를 역적으로 몰아 탄압
-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 재봉기(백산 봉기) → 황토현, 황룡촌 전투에서 관군 격퇴 → 전주성 점령(4.27)
- 정부의 요청에 따라 청군 파견(아산만 상륙 5. 5) → 텐진 조약 위반을 명분으로 일본군 파견(인천 상륙 5. 9)
- 전주 화약 체결(5.8): 동학 농민군은 외국군대 철수와 폐정 개혁을 조건으로 정부와 화친 → 집강소 설치 → 일본의 궁성 침입(6.21)

< 집강소 시기 >

- 전라도 각 고을에 설치한 동학 농민군의 자치 기구
- 폐정 개혁안 실천 → 불량한 지주와 부호 처벌, 신분 질서 해체, 치안 유지

<2차 봉기>: 1894.9, 남접+북접, 항일구국 투쟁

-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간섭, 개혁 강요 →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봉기
- 남·북접 연합부대 형성(논산에 대본영 설치)

- 전봉준이 이끄는 주력 부대가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정부군에게 패퇴(11월) →

전봉준 등 동학 지도자 체포(12월)

37. 다음은 일제 강점기 독립 운동의 격문 및 선언서들이다.
선포한 시기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 ㄱ. 조선 청년 독립단은 아(我) 2,000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득(得)한 세계 만국의 전(前)에 독립을 기성(既成)하기를 선언하노라.
- ㄴ. 조선 민중아!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제국주의 일본이다. 2,000만 동포야!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만세, 만세, 조선 독립 만세.
- ㄷ. 오동(吾等)은 자(自)에 아(我)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告)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大義)를 극명(克明)하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告)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政權)을 영유(永有)케 하노라.
- ㄹ. 400의 용사! 우리들의 투쟁이 점점 전개되어 가나, 투쟁은 단순히 전남에만 한정된 일이 아니다. …… 전 조선 수백만의 학생 대중은 우리들의 승리를 기다리고 2,000만 민족은 우리들의 성공을 눈물을 머금고 갈망하고 있다.

-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ㄷ - ㄴ - ㄹ
③ ㄴ - ㄷ - ㄹ - ㄱ ④ ㄴ - ㄹ - ㄱ - ㄷ
⑤ ㄷ - ㄱ - ㄴ - ㄹ

정답: ②

* 일제시대의 대규모 시위운동들

ㄱ: 2.8독립선언문(1919.2)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도 '민족 자결'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민족 자결론은 약소민족들을 크게 고무시켰고 식민지의 민족 운동을 고양시켰다. 이에 국내외의 민족 운동가들도 독립을 요구하는 거족적인 시위를 구체화하는 가운데 일본에서 조선 청년 독립단(최팔용, 백관수 등)의 2·8 독립 선언이 선포되었다.

ㄴ: 6.10만세(1926)

사회주의자와 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은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만세 운동을 계획하였다(1926).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한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다. 6월 10일, 일제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학생들은 격문을 살포하고 독립 만세를 외침으로써 대규모의 군중 시위 운동을 전개하였다.

ㄷ: 기미독립선언문(1919)

일제의 무단 통치로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던 민족 지도자들은 제1차 세계 대전 종전과 함께 제창된 민족 자결주의와, 도쿄에서 일어난 2·8 독립 선언에 고무되어 독립 운동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고, 국내외에 독립을 선언하였다(1919. 3. 1.).

ㄹ: 광주학생항일운동(1929)

1929년 11월, 일제의 민족 차별과 식민지 교육에 저항하는 학생 시위가 광주에서 일어났다. 일제의 보도 통제에도 불구하고 학생 시위는 인근의 나주와 목포로 확산되었으며, 일반 시민들도 시위에 가담하였다. 3·1 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가 독립운동의 주역임을 확인하였다.

38. 다음은 같은 해 일어났던 사건들을 모은 기록이다.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실은? [2점]

- 중추원 의장 김윤식 등이 내각에 건의하여 송병준과 이용구를 제거하도록 하였다.
- 무녀(巫女) 수련(壽蓮)이 이토 히로부미의 추도회를 거행하다.
- 황해도 해주의 의병장 지관식이 해주에서 일본인과 싸워, 전투에서 패하고 죽다.
- 김옥균 등에게 관직을 증직하고 시호를 내려주다.
-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통감으로 오다.

- ① 융희를 새 연호로 정하다.
- ② 경찰권을 일본에 빼앗기다.
- ③ 사법권과 감옥 사무권이 박탈되다.
- ④ 일본이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얻다.
- ⑤ 스티븐스와 메가타가 고문으로 오다.

정답: ②

* 1910년에 있었던 주요 사건

정확히 말하자면 한일합방(8.29) 직전의 사건들이다(1910년 5월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를 3대 통감으로 임명)

- ① 융희 연호(순종의 즉위: 1907)
- ② 경찰권 박탈(1910.6)
- ③ 사법권 박탈(기유각서: 1909.7)
- ④ 안봉 철도 부설권 획득(1909)
 <- 간도협약
- ⑤ 1차 한일협약(1904.8): 고문 정치

39. 밑줄 그은 '새로운 지배 정책'이 시행된 시기에 제정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 점]

일제는 헌병 경찰 통치 대신 새로운 지배 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언론·출판의 자유 허용도 기만 정책의 표면적 구호에 그쳤다. 일제는 신문·잡지에 대한 사전 검열을 강화하였고, 기사를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신문의 정간과 폐간도 서슴지 않았다. 결사나 집회의 허용도 친일 단체를 조직하는데 이용되었다. 즉, 친일 단체나 자산가, 종교인의 집회는 인정하고, 노동자, 농민, 학생의 조직이나 집회는 가차없이 탄압하였다.

- ① 국가 총동원이란, 전시에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이다.
- ② 신문지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지를 관할하는 관찰사를 경유하여 내부대신에게 청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문서, 도서를 출판하고자 하는 때는 저작자 또는 그 상속자 및 발행자가 …… 내부대신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④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결사에 가입하는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⑤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언어·동작을 하거나 …… 치안을 방해하는 자는 50 이상의 태형, 10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2개년 이하의 징역에 처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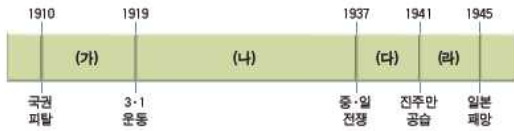
정답: ④

* 민족분열통치(문화통치: 1920년대)와 치안유지법

3·1 운동 이후 일제는 이른바 문화 통치를 표방하였으나 이는 가혹한 ㉠ 식민 통치를 은폐하기 위한 간악하고 교활한 통치 방식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 나라에서 일제가 축출될 때까지 ㉡ 단 한 명의 문관 총독도 임명되지 않았고, 헌병 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로 바꾸었지만 경찰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오히려 일제는 ㉢ 문화통치를 통하여 소수의 친일 분자를 키워 우리 민족을 이간하여 분열시키고, 민족의 근대 의식 성장을 오도하며, ㉣ 초급의 학문과 기술 교육만을 허용하여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도움이 될 인간을 양성하려 하였다.

- ① 총동원체제(1938~1945)는 3기(민족말살통치 기간임)
- ② 신문지법은 1907년 반포되었음
- ③ 신문지법에 포함되어 있음
- ④ 치안유지법(1925, 사회주의 탄압 목적)
- ④ 조선 태형령(1912년 반포, 무단통치기:1기)

40. (가)~(라) 시기 일제의 교육 정책이 옳게 연결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 점]



〈 보기 〉

ㄱ. (가) - 국민학교는 대륙 침략에 이용하는 병사의 준비와 관련해서 의무 교육제의 준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ㄴ. (나) - 종래 4년이던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경성 제국 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을 반포하였다.

ㄷ. (다) - 국체명징(國體明徵), 내선일체(內鮮一體), 인고단련(忍苦鍛鍊) 등 3대 교육 방침을 내세우고, 학교 명칭을 처음으로 일본인 학교와 같게 하였다.

ㄹ. (라) - 조선인을 가르치는 모든 사립학교는 교사 임용, 교과용 도서 채택 등에 있어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일제 시대의 시대별 교육정책
(각 시기의 특징이 녹아있음)

• 1차 교육령(1911): 교육기회 축소(보통교육 수업연한 축소: 4년), 우민화 교육(보통, 실업, 전문학교로 구분, 보통교육, 기술교육 위주, 대학교육 불허),

• 서당규칙(1918): 사립교육 탄압

• 2차 교육령(1922): 유화정책(보통교육 수업 연한 연장: 4년->6년), 한국어 필수화, 대학설립 가능), 동화 정책, 민립대학 설립 운동 탄압

• 3차 교육령(1938): 보통학교 -> 심상소 학교, 황국신민화 교육(한국 역사 지리, 역사, 언어 교육 폐지, 내선일체)

• 천황 칙령(1941): 소학교 -> 국민학교, 교과목을 국민과, 이수과, 체련과, 예능과, 직업과로 통합

4차 조선 교육령(1943): 한국어 과목 폐지, 전시 교육 체제 강화

㉠ 천황 칙령(1941) 이후

㉡ 2차(보통 학교 수업 연한 연장, 경성 제국 대학 설립령)

㉢ 3차(내선일체, 황국신민화 교육)

㉣ 사립학교령:1908

41. 다음 글의 (가) ~ (라)에 들어갈 국가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제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조선책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는(은) 우리가 신하로서 섬기는 바인데, 이제 무엇을 더 친할 것이 있었습니까? (나)는(은) 우리에게 매여 있던 나라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허술함을 알고 함부로 쳐들어오면 장차 이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다)는(은)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인데, 공연히 타인의 권유로 불러들였다가 어려운 청을 하거나 하면 장차 이에 어떻게 응할 것입니까? (라)는(은) 본래 우리와 혐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공연히 남의 말만 듣고 틈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의 위신이 손상될 뿐 아니라, 이를 구실로 침략해 온다면 장차 이를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 보 기 >

ㄱ. (가) - 조선 주재 부영사가 한반도 중립화론을 건의하였다.
 ㄴ. (나) - 경인선 부설권과 강원도 당현 금광 채굴권을 얻었다.
 ㄷ. (다) - 운산 금광 채굴권을 차지하였다.
 ㄹ. (라) - 절영도를 조차하려고 시도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위정척사세력의 ‘조선책략’ 비판(1881: 영남 만인소)과 열강의 이권 침탈(1896~)

(가) 청, (나) 일, (다) 미, (라) 러

1880년대에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선책략』을 유포하고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려 하자 유생들은 집단 상소를 올려 반발하였다.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영남 유생들은 ‘만인소’를 올려 『조선책략』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김홍집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국적인 상소 운동이 전개되었다(1881). 강원도 유생 홍재학은 정부의 개화 정책을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왕까지 규탄하였다가 처형당하였다.

- ㉠ 중립화론: 부들러(독일영사)
 ㉡ 경인선 부설권: 미국
 당현 금광 채굴권: 독일
 ㉢ 운산 금광 채굴권: 미국
 ㉣ 절영도 조차: 러시아

42. 다음은 어느 독립 운동가의 생애를 정리한 것이다. 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1919년	파리 강화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 신한 청년당 조직,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 제출
1921년	동방 피압박 민족 대회 참석
1935년	민족 혁명당 창당, 주석 취임
1942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위원

- ① 일본의 항복 선언 직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 외무부장을 지냈으며, 삼균주의를 주장하였다.
- ③ 광복 이후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남북 협상에도 참여하였다.
- ④ 조선 혁명 선언을 발표하여 독립을 위한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도하였다.
- ⑤ 일본인의 무사 귀환을 보장하는 대가로 조선 총독에게 5개 조항을 요구하였다.

정답: ③

* 일제 시대와 해방 이후의 김규식

김규식(1881~1950.12): 호는 우사(尤史). 미국에서 공부하여 서양문물에 익숙하였다. 1919년 상해에서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여 파리강화회의 참석하여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고, 대한민국임시정부 부주석을 지냈으며, 유럽·미국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교활동의 선봉에 섰다. 만주에서 대한독립군단의 지휘관으로도 활약하였고, 광복 후에는 신탁통치반대운동에 앞장섰으며, 1946년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후 단정론이 제기되자 중도 좌파 여운형과 함께 중도 우익 세력을 이끌고 좌우 합작운동을 전개하였다. 1948년 남한의 단독 총선거에 반대하여 김구와 함께 북한으로 건너가 남북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정계를 떠났고 6.25 전쟁 중 납북되어 사망하였다.

- ① 건준위(여운형)
- ② 삼균주의(조소앙)
- ④ 조선혁명선언(신채호)
- ⑤ 여운형과 조선 총독부와의 해방 직후 정권 이양을 위한 교섭

43. 다음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기를 드라마로 제작하려고 할 때에 등장인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점]

만득이가 떠난 후에도 마을 청년들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징병이나 징용으로 끌려가 남자라고는 중늬은이 이상만 남게 되었다. …… 아주 나쁜 소식이 연병보다 더 흉흉하고 걸잡을 수 없이 온 동네를 휩쓸었다. …… 일본 본토나 남양 군도에 가서 일하고 싶은 처녀들은 지원하면 보내 주고, 나중에 집에 송금도 할 수 있다는 면사무소의 공문이 한바탕 돈 후였지만, 그럴 생각이 있는 집은 한 집도 없었고, 설마 돈벌이를 강제로 보내리라고는 아무도 짐작을 못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문은 그게 아니어서 몇 사람씩 배당을 받은 면사무소 노무와 서기들과 손사들이 과년한 딸 가진 집을 위협도 하고 다짜고짜 끌어가는 일까지 있다고 했다.

- ① 면에 설치된 신사에서 참배하는 학생과 부녀자들
- ② 조선 물산 공진회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한 상인
- ③ 황국 신민 서사 외우기를 강요하는 교사와 이에 반발하는 학생들
- ④ 일본에 항공기 헌납 의사를 밝히는 기업가와 성전 참여를 독촉하는 문인
- ⑤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기를 강요하는 면서기와 이에 반발하는 마을 노인

정답: ②

* 총동원령(1938년 이후) 민족 말살 통치기 모습(징병, 징용, 정신대 등이 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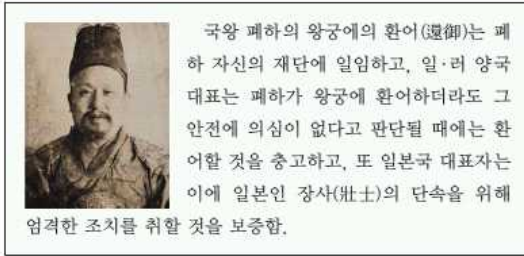
일제는 중일 전쟁 이후 국가 총동원령을 선포하며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 하려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내선 일체의 구호를 내세워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또,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쳐 쓰도록 하고(창씨 개명),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궁성 요배, 신사 참배 등을 강요하였다.

특히, 일제는 강제 징용으로 한국인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학도 지원병 제도, 징병 제도 등을 실시하여 수많은 우리 젊은이를 전쟁에 동원하였다. 또, 젊은 여성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여 군수 공장 등에서 혹사시켰으며, 그 중 일부는 전선으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② 조선 물산 공진회: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박람회) 개최, 총독부 통치의 전시적 성격을 보여준다.

④ 기업가들의 재산 헌납(박홍식)과 문인(서정주, 이광수)들의 성전 참여 촉구

44. 다음 자료가 나타났던 당시의 정세를 만화로 그릴 때에 적절한 장면은? [2점]



- ① 한글로 된 독립신문을 읽고 있는 시민
- ② 아들을 대성 학교에 입학시키는 평양 시민
- ③ 헌의 6조를 채택하는 관민 공동회의 군중들
- ④ 지주에게 지계를 발급하는 양지아문 소속 관리
- ⑤ 내각을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는 총리대신 김홍집

정답: ①

* 고종의 환궁과 대한제국선포, 광무개혁 (1897)

• 대한 제국은 구본신참의 원칙 아래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대한 제국은 국가의 자주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와 재정 확충, 상공업 육성에 주력하였다.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하고 황제 호위 부대를 증강하였으며, 장교 양성을 위해 무관 학교를 설립하였다.

대한 제국은 조세 수입을 늘리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양전 사업과 지계 발급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상공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여 섬유, 운수, 광업, 철도 등의 분야에서 근대적 공장과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근대적 과학 기술을 일으키기 위해 의학교, 상공학교, 외국어 학교 등을 세우고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 대한제국은 전결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양지아문을 설치(1898)하여 양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지계제도를 채택하여 지계아문에서 토지문권인 지계를 발급(1901)하였다. 전국적으로 실시되지는 못하였다(전 국토의 2/3 조사, 지계 발급은 강원과 충남 일부 지역)

- ① 독립신문(1896~1898)
- ② 대성학교(1907~)
- ③ 관민공동회(1898)
- ④ 지계발급(1901~1904년)
- ⑤ 김홍집(1842-1896)

45. 다음 역사 이론을 주장한 역사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우리 민족사는 우리 민족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우리 민족이 세계 여러 민족 중의 하나임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사도 또한 세계사 속의 하나이다. 우리는 고대로부터 이웃한 여러 다른 민족과 직접, 간접으로 복잡한 문화 관계, 투쟁 관계를 맺어 왔으므로, 세계사를 통하여서만이 비로소 우리 민족사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민족사를 빼고는 세계사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수천 년 전 옛날부터도 그러하였거늘, 하물며 세계가 이웃화한 금일에 있어서랴. 우리는 왜국적인 배타적, 독선적 사이비한 민족 사상을 버리고, 개방적이요, 세계적이요, 평등적인 신민족주의의 입지에서 우리 민족사를 연구하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 < 보 기 > —

- ㄱ. 일제 시대에 진단 학회 창립과 <진단 학보> 발행에 참여하였다.
- ㄴ. 우리 고대사를 주제적으로 그려 낸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였다.
- ㄷ. 사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한국사를 세계사적 보편성 위에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 ㄹ. 민족 성장의 논리와 사회 발전의 논리를 종합하여 우리 역사를 전체로서의 민족사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손진태의 신민족주의 역사관

손진태(1900~1950(?)): 한국의 사학자, 민속학자. 한국 최초 민속학회지 <조선민속> 간행, 진단학회 창설에 참여했다. 서울대학교 문리대 학장, 문교부차관 겸 편수국장을 지냈다. '신민족주의사관'을 제창했다. 저서는 <조선고가요집>등이다.

• 손진태는 자신이 주장하는 신민족주의의 사학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개방적, 세계적, 평등적이라고 하였으나, 역사연구의 단위를 '우리 민족사'라고 단정하였다. 그러기에 그의 <국사대요>에서는 민족의 성장에 따른 시대구분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신석기시대를 민족형성 배태기, 삼국 이전 시대를 민족형성 시초기, 삼국시대를 민족 통일 추진기, 고려시대를 민족의식 왕성기, 조선왕조를 민족의식 쇠퇴기, 그리고 일제시대를 민족운동 전개기로 구분하였던 것이다.

㉠ '조선상고사'는 신채호가 저술

㉡ 사적유물론의 역사 서술은 조선사회경제사를 통해 세계사적 보편성으로 일제의 정체성론을 반박한 백남운이다

46. 다음 선언문이 발표될 당시의 헌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2점]

민주주의와 민중의 공복이며 중립적 권력체인 관료와 경찰은 민주를 위장한 가부장적 전제 권력의 하수인으로 발벗었다.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의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되었다.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사상의 자유의 불빛은 무식한 전제 권력의 악랄한 발악으로 하여 꺾박이던 빛조차 사라졌다.

- ①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정하였다.
- ②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을 부여하였다.
- ③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였다.
- ④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규정하였다.
- ⑤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하였다.

정답: ⑤

* 이승만 통치(1948~1960)

• 관료, **경찰** 위주의 공권력 발동, 가부장적 전제 권력으로 묘사가 힌트

• 6·25 전쟁의 와중에 이승만 정부는 1952년 **발췌 개헌**(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여당이 주장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골자로 하고, 야당이 주장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발췌, 절충하였다)을 강행하였고, 1954년 **사사오입 개헌**(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횡수 제한 없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헌안이 국회 표결 결과 1표 차이로 부결되었으나, 이틀 후에 반올림(사사오입)을 내세워 통과시켰다)을 통해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① 7년 단임, 대통령 간선제(대통령 선거인단): 5공헌법(1980-1987)

② 긴급조치, 6년, 연임제한(X), 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 국민회의), 국회의원 1/3 대통령 지명: 유신헌법(1972-1980)

③ 대통령 국회 간선 선출(제헌국회:
1948-1952, 이승만 통치 기간이지만 대통령 독재 체제는 아님)

④ 내각책임제와 양원제(참의원, 민의원) 실시는 2공화국 헌법(1960-1961)

47. 다음 법령의 시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점]

-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소유권자의 명목이 분명하지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하며, 농가 아닌 자의 농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농지 등은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 국유 농지는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경작 능력에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농업 경영 경험을 가진 순국열사의 유가족, 영농 능력을 가진 피고용 농가, 국외에서 귀환한 농가의 순위에 따라 분배, 소유케 한다.

- ① 지주층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 ② 제헌 국회에서 지주 및 상공인 출신의 반대가 있었다.
- ③ 국가에서 몰수한 토지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하였다.
- ④ 일부 지주들은 개혁이 단행되기 전에 토지를 미리 처분하였다.
- ⑤ 농지의 분배는 1 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하였다.

정답: ③

* 남한 농지개혁법

(1949년 제정, 1950~1957 시행)

제헌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 자립과 농업생산력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49.6.21. 법률 31호).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체제하의 자유민주국가이므로 복합과 같이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는 허용되지 않아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토(소작인이 경작하는 농토)에 한하여 정부가 5년 연부보상(年賦補償)을 조건으로 소유자로부터 유상취득하여 농민에게 분배해 주고, 농민으로부터 5년 동안에 농산물로써 정부에 연부로 상환하게 하는 이른바 유상몰수·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지주와 소작인 간의 분쟁 등은 해결되었으나, 반면 지주계급의 몰락을 초래하였고, 또한 이 법에서 농가의 농지소유한도를 3정보(町步)로 제한하여 그 소작·임대차 또는 위탁경영을 금지하고 매매도 제한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영세화(零細化)와 농촌근대화(農村近代化)의 장애요인이 되었다. 그 때문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으므로, 현행 헌법은 이를 참작하여 제121조에서 농지의 소작제도(小作制度)는 금지하되, 농업 생산성의 제고(提高)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농촌근대화의 길을 도모하고 있다.

③ 국가에서 지주로부터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유상매입하여 장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유상분배

48. 밑줄 그은 '이 협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은? [1 점]

이 협정의 결과,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많은 차관을 들여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보상 문제 등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양보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나기도 했다.

- ① 어업에 관한 문제
- ②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
- ③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문제
- ④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문제
- ⑤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와 경제 협력에 관한 문제

정답: ②

* 한일국교정상화(1965)

1965년 6월 22일 한국의 외무장관 이동원(李東元), 한일회담 수석대표 김동조(金東祚)와 일본 외무장관 시이나 에쓰사부로[推名悦三郎], 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晉一] 사이에 조인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협정부속서 2, 교환공문 9, 의정서 2, 구술서 4, 합의의사록 4, 토의기록 2, 계약서 2, 왕복서간 1)의 총칭이다.

부속협정은 ① 어업에 관한 협정, ②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③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④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다.

조약의 교섭(한일회담)은 14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최종단계에서는 두 나라에서 모두 야당과 학생 등의 강력한 반대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1964년 6.3사태: 비상계엄령)

박정희 정부는 그 댓가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2005년 관련문서가 공개되면서 이 조약에 대해 어업과 청구권에 대해서 한국측이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비판이 있다.

② 독도 영유권을 다루지 않아 이후 현재까지 분쟁이 되고 있음

49. (가)와 (나) 노래가 등장했던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점]

(가)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나)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설움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 ① 과외가 금지되고 대학 입학 본고사가 폐지되었다.
- ② 근면, 자조, 협동을 내세운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다.
- ③ 청바지, 통기타 등으로 상징되는 청년 문화가 등장하였다.
- ④ 중화학 공업 정책에 따라 남성 노동자의 비율이 늘어났다.
- ⑤ 종교계와 대학생들 중심으로 유신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정답: ①

* 70년대 유신 통치기

가) 새마을노래(새마을 운동)

나) 아침이슬(유신체제 비판)

① ‘과외금지’, ‘대학입학 본고사 폐지’는 전두환 통치기 (1980~1988, 헌법상은 1981~1988)에 있었다

②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벌어지자 정부는 1970년부터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였다.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강조한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소득 증대, 환경 개선에 기여하였고, 이는 도시 새마을 운동으로 이어졌다.

③ 대중음악의 경우 전통적인 트로트 계열의 가요가 유행하는 가운데 1970년대에 들어 통기타와 청바지로 상징되는 포크 송 양식의 대중가요가 젊은 계층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④ 1970년대에는 제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어 중화학 공업, 전자 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구미 공업 단지, 울산 석유 화학 공업 단지, 여수 종합 화학 기지가 건설되었다. 따라서 남성 노동자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었다.

⑤ 유신 체제 하의 독재와 억압 정치에 맞서 야당과 종교인, 대학생 등은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유신 체제 반대 운동에 대해 긴급조치권 등을 이용하여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50. 다음 성명 발표의 영향으로 나타난 사실은? [2 점]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 ②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③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 ④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루어졌다.
- ⑤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이 이루어졌다.

정답: ②

* 7.4 남북공동선언(1972.7.4)

1970년대에 들어와 냉전 체제의 완화, 남한의 경제 발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남북 교류를 제의하고, 남북 간에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적십자 대표의 예비 회담을 열었다.

또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1972. 7. 4). 이 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이후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 ① 이산가족 상봉(1985)
- ③ 남북 기본합의서(1991,12)
- ④ 한반도 비핵화선언(1992.2)
- 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1991.8)